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할 국내 최강자 선발

93년도 남녀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93. 3. 29-31, 서울체육고등학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에 파견할 한국 국가대표선발전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체고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92년도 국가대표 1, 2진 및 92년도 우수선수선발대회 1, 2위, 93년도 1차 국가대표선발대회 1, 2위자, 93년도 2차 국가대표 선발대회 1, 2위자 등 계급별로 8명이 출전한 가운데 토너먼트전으로 실시되었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티켓을 따내기 위해 국내 정상급 태권도 선수들이 총망라되어 팽팽한 접전이 벌어진 국가대표선발전에서는 남자부 미들급 경기에서 서울체고의 이동완이 원발 돌려차기 등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며 결승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전국가대표 이현석을 2:0 판정승으로 누르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남자부 8계급 중 한체대는 편급의 진승태, 플라이급 박제성, 밴텀급 김인경이 국가대표 1진으로 선발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남자 플라이급 경기는 쌍둥이 형제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 8강에서 형 박제성(한체대)은 경희대의 맹성재를 이기고 4강에 올랐고, 동생 박재완(경상대)은 경희대의 조제성을 3:2 판정으로 누르고 4강에 올라 숙명의 대결을 맞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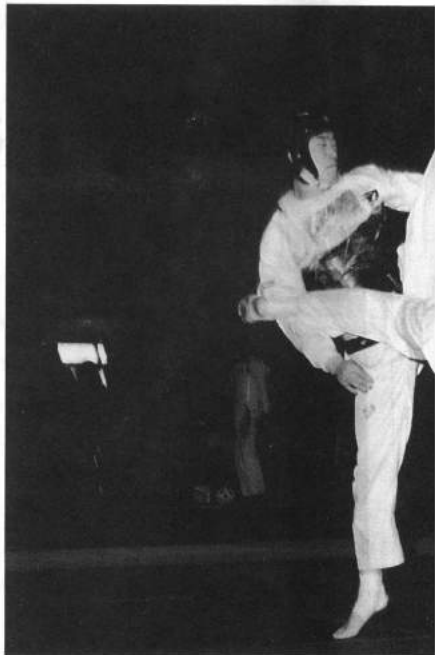
이들의 경기결과는 2:2 동점을 이루는 팽팽한 접전이었으나 형 박제성에게 우세승이 돌아갔다.

결승전에서 박제성은 92국가대표 서성교(춘천군청)를 2:2 동점끝에 우세승을 거두고 국가대표

로 선발되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리라공고의 유수미가 92년도 국가대표 모선영을 3:2 판정승으로 제압하고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었다.

한편 여자부 라이트급서 연승, 돌풍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한 경성여실고 1학년생인 강해은은 결승전에서 경희대의 박경숙을 맞아 접전끝에 동점을 이루는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었으나 우세승을 내주고 대표 2진으로 선발되었다.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남자 및 제4회 여자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파견될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다음과 같다.

(남자부)

핀급: 진승태 (한체대)

플라이급: 박재성 (한체대)



쌍둥이 형제 대결로 큰 관심을 모은 형 박재성 (왼쪽)과 동생 박재완 (오른쪽).

밴텀급: 김인경 (한체대)

페더급: 김병철 (국군체육부대)

라이트급: 박세진 (경희대)

웰터급: 임영호 (경희대)

미들급: 이동완 (서울체고)

헤비급: 김제경 (국군체육부대)

(여자부)

핀급: 유수진 (경희대)

플라이급: 유수미 (리라공고)

밴텀급: 원선진 (경희대)

페더급: 이승민 (경희대)

라이트급: 박경숙 (경희대)

웰터급: 김미영 (용인대)

미들급: 박은선 (고양여중고)

헤비급: 정명숙 (혜성여고)

한편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4회 월드게임에 출전하게 되는 국가대표는 다음과 같다.

(남자부)

플라이급: 서성교 (춘천군청)

페더급: 김정호 (경희대)

웰터급: 장종오 (용인대)

헤비급: 김현일 (서울지하철공사)

(여자부)

플라이급: 모선영 (한체대)

웰터급: 조항미 (경희대)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게 위한 마지막 훈련되는 경기

대통령기 완전 물같이 新실세(?) 영복종고, 경희대, 춘천군청

제28회 대통령기전국 단체대항대회
(93. 6. 16~19, 잠실학생체육관)

문민정부의 개혁바람이 대통령기 대회까지 세차게 불어왔는가? 28년 전통, 대통령기 대회의 오랜 보수 세력(?)들을 일지에 몰아내고 새로운 실세들이 급기 등장, 파란을 일으켰다.

개혁의 각 분야별 실세는, 고등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재야세력, 영복종고(감독 임영선), 전년도 대권 쟁취 일보직전에 분부를 삼킨 대학부의 고참중견 경희대(코치 전정우), 특정지역의 절대지지와 여러차례 동맹합의 자기단련으로 성장해 온 일반부의 강력 야당 춘천군청(코치 박계희).

이들이 동반한 개혁풍(風)이 향후 태권도 경기 전반에 몰아칠는지, 아니면 두둑기로 유명한 보수세력의 벽에 부딪쳐 킥속의 태풍으로 그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대학부시상식에서 우승팀 경희대에 우승기와 우승컵을 수여하는 최세창회장.

최고난전 고등부, 최소메달로 우승

69개팀 430명이 8개의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 고등부는 난전에 난전을 거듭.

결승(16명)에 진출한 학교는 전년도 우승팀인 대전체고와 전년도 강호 동성고를 비롯해 서울체고, 리라공고 등 기라성같은 팀 15개교로, 역대 대통령기 대회중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4강(32명)에 진출한 팀이 22개교로, 경기력의 평균화차원을 넘어 「태권도명문고」의 개념을 무색케 만들었다.

4강에서 4체급을 올린 리라공고나 3체급씩을 올린 동성 또는 대전 대성고의 우승이 조심스럽게 예상됐으나, 역시 「대통령기는 운도 따라야」하는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모두 1체급씩만 결승에 진출시켜, 2체급 모두 결승에 오른 영복종고에 우승기를 빼앗겼다.

영복을 제외한 어느팀도 금과 은메달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전대성고가 플라이급에서 우승하고 동메달2개를 갖고있어 영복종고가 결승에서 2체급 모두 패할 경우 어부지리로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

밴텀급에서 영복의 신명국선수가 청주신흥고의 유원철선수에게 패퇴, 은메달에 머물며 기적의 역전드라마가 전개될까 했지만, 역시 승리의 여신은 영복종고에게 손짓을 하여, 라이트급 김남웅선수(우수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며 역대 유례없이 치열했던 고등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어느 팀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대통령기의 대권고지를 돌격대 2명으로 점령해 버린 영복종고의 개혁바람은 그동안 세가 약해 눌러왔던 중소약체팀들에

계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지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력의 보수 강팀들의 재반격을 누르고 장기집권 할 수 있을지는 향후 1년간의 내치(內治)에 달려 있다 하겠다.

▲지도상:영복종교 감독 임영선

▲우수선수상:라이트급 김남웅

권토중래 경희대 8년만에 대권안아

20개팀 139명의 선수가 출전한 대학부는 처음부터 대령팀기 우승단골인 한체대와 동아대, 태권도학과 자부심의 경희대와 용인대, 다크호스 충남대와 경상대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3명의 주포를 대표선수로 차출당한 무적함대 한체대가 예선에서 군소팀들의 심자포화를 맞고 6명이 탈락, 침몰하면서 그간 대령팀기 주변에서 맴돌던 만년 2등 경희대의 독주가 시작되었다.

우승의 문턱인 결승에서, 4체급을 올린 경희대와 각각 2체급씩 올린 동아대와 충남대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3팀 모두 2승이면 우승을 바라 볼 수 있지만, 충남대는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맞대결이 없어 이미 우승고지에서는 한발 물러선 상태.

핀급과 플라이급에서 각각 금메달 1개씩을 거머쥔 동아대와 경희대의 마지막 한판 대결은 웰터급, 최정복(경희대)과 김호(동아대)를 내세운 두 팀은 이 한 경기에서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다.

전년도에 우승을 눈앞에 두고 감점패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분부를 삼켜야 했던 경희대는 최정복의 악전고투끝에 3-2의 신승으로, 미들급경기와는 관계없이 8년만에 우승기를 거머쥐는 기쁨을 맛보았다.

준우승은 동아대를 동메달 1개 차이로 3위로 밀어낸 다크호스 충남대(금1, 은1, 동2)가 차지했다.

▲지도상:경희대 코치 전정우

▲우수선수상:웰터급 최정복

실업팀 육성, 10년만의 결실 춘천군청

선수층이 얇아 하위팀의 불명예를 숙명처럼 안고



있는 강원도협회(회장 김성태)가 10년의 절치부심으로 육성해온 실업팀이 드디어 결실을 이루었다.

15개팀 77명이 출전한 일반부는, 국군체육부대팀이 해외전지훈련으로 불참한 가운데 서울지하철공사, 보령군청, 대전시동구청, 춘천군청 등 진짜(?) 실업팀들끼리의 대결로 주목받았다.

전년도 우승팀인 지하철공사(감독 김영희)와 서성교, 하태경 등 호화멤버의 춘천군청팀의 각축이 예상되었으나, 무명의 선수를 앞세운 대전시동구청과 보령군청의 기습에 판도가 다소 흔들렸다.

결승에 6체급을 올린 파죽지세를 몰아 금3, 은3으로 우승을 확정지은 춘천군청팀에 이어 대전시동구청은 정영길, 박종천(금), 백승학(은) 등 히트카드로 저력의 지하철공사(금2, 동2)를 밀어내고 은메달 1개차로 준우승에 올랐다.

춘천군청팀(감독 박병철)은 83년 설악케이블카로부터 이어오는 강원실업팀의 적자(適子)로서, 강원도실업팀육성 10년만에 결실을 본 대기만성의 패거리 할 수 있다.

▲지도상:춘천군청 코치 박계희

▲우수선수상:밴텀급 서성교

한편 전년도 각 부별로 고른 우수성적을 거둔 대전팀은 금년에도 3개부 준우승을 모두 석권함으로써 (고등부-대성고, 대학부-충남대, 일반부-대전동구청), 3개부의 탄탄한 연계를 확인하는 우승에 못지 않은 수확을 거두었다. **▶▶▶**

신인들의 등용문, 8번의 경기 모두 이기고 편급 우승 차지한 김병태



누구의 발차기 위력이 더 센지...

93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93. 4. 10~30, 올림픽 제2체육관, 국기원)

고등부 대회

신인들의 등용문인 종별선수권대회가 지난 4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총 888명이 출전한 고등부 대회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우승의 고지를 향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198명이 참가한 편급경기는 결승진출까지 8번의 시합을 치르어야 하는 가장 어려운 판문으로, 대전체고 3학년생인 김병태가 결승에서 선인고 1학년생인 전형준을 맞이하여 몸통 원발 돌려차기 등을 성공시키며 판정승을 거두고 편급 우승의 영

광을 차지했다.

플라이급 결승전에서는 풍생고의 나호동과 부평기고의 김원기가 접전을 벌이면서 나호동이 2회와 3회 뒤차기로 몸통 공격을 성공시키며 3:2로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밴텀급 정상은 대전체고의 윤정환이 차지. 청주신흥고의 유원철과의 결승전에서 2회와 3회에 돌려차기로 득점을 따내며 5:1 판정승을 거두었다.

페더급에서는 광주체고의 김영주가 돌려차기와 내려차기 등을 성공시키며 리라공고의 이명복을 공략, 10:5의 큰 점수를 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송곡고의 이용국과 광양고의 마정진도 개급고의 김정수와 충북체고의 지상규를 각각 3:2, 6:4로 누르고 라이트급과 웰터급 정상에 올랐다.



중등부 체급별 우승자

일반부는 출전자가 적어 마지막날 하루에 예선부터 결승까지 치르는 경기 진행으로 18명이 출전한 페더급의 경우 대전협회의 박상석은 다섯 번의 힘겨운 대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전국 규모대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등부 경기는 필승을 향한 의욕속에 열전이 펼쳐졌다.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편급 경기에서는 각각 6번의 경기를 치르고 결승에 진출한 관교중의 김현주와 은행중의 정용조가 대결, 3:1 판정으로 김현주가 승리의 기쁨을 차지했다.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은 막상막하의 경기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한판 승부를 치른 끝에 효성중의 이영수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2위를 차지한 동성중의 박병주는 1회 내려차기로 1득점을 얻으며 앞선 가운데 2회에 1점을 추가하며 앞서는데 했으나 2회말 연속 돌려차기로 이영수에게 2득점을 내주며 동점을 이루었다.

3회에 두 선수 모두 필승을 향한 힘찬 발차기로 박병주가 2점, 이영수가 3점을 추가하는 치열한 접전끝에 이영수가 역전승을 거두었다.

승자와 패자는 가려졌지만 선전을 보인 두 선수에게는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라이트헤비급 결승전에서도 광주체육중의 서성복과 한성중의 조현준이 1회에 1:1, 2회에 1:2, 3회에 2:1 등 총 4:4 동점을 이루는 막상막하의 경기끝에 서성복에게 우세승이 돌아갔다.

일반부 경기에서는 체육선교신학교가 3명의 우승자를 배출하며 신흥 명문으로 떠올랐으며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대전협회 소속팀의 박종천과 박상석이 플라이급과 페더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EN21**



고등부 체급별 우승자

미들급의 윤병석은 개급고의 전경한에게 기권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최종량급인 헤비급경기에서는 인천체고의 문용철이 서울체고의 김정민을 7:4로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다.

중등부, 일반부

중등부 및 일반부 종별선수권대회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중등부 643명, 일반부 64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는 이틀간 중등부 예선전을 가진 후 마지막날 일반부 전경기 및 중등부 8강전부터 결승까지 진행되었다.

인천대표 3체급 우승자 배출하며 최강 자랑



인천의 전명환선수(왼쪽)는 경기사상 최대의 점수(18:14)를 올리며 판정승을 거두었다.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93. 5. 28~31, 국기원)

꿈나무들의 스포츠 축제인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미래의 체육한국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선수들을 조기 발굴하고 국민체육향상 및 청소년 스포츠 활

성화를 피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소년체육대회는 참가 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막고 관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석가탄신일과 주말을 이용해 실시되었다.

태권도 경기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중학교부 남자 11체급 경기가 실시된 태권도 경기는 시도 소년체전 대표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느 대회 못지 않은 기량과 패기가 돋보인 가운데 연휴를 맞아 경기장을 가득



영화배우 이동준씨(전국가대표)가 고향 후배들과 함께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다.

매운 선수 가족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대회 3일간 열전이 펼쳐졌다.

대회 첫날은 핀급부터 미들급까지 9체급 예선전 경기가 펼쳐졌다.

서울과 인천 대표팀은 각각 7체급에서 예선을 통과하는 선전을 보여주며 선두로 나서는 한편 대전협회팀은 전체급에서 예선탈락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대회 첫날 경기를 마치고 협회는 오후 5시부터 국기원 식당에서 시도협회 선수단을 위한 환영연을 성대히 마련하여 이들의 대회참가를 축하하며 선전을 당부했다.

대회 이튿날에는 10시 40분경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과 최창신 문화체육부 차관보,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김성집 대통령선수총장 등이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마지막날은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의 높은 기량과 열띤 시도간 응원전으로 열기가 가득한 가

운데 열전이 펼쳐졌다.

인천대표팀은 3체급에서 우승자를 배출하였고 서울과 전남, 광주가 각각 2체급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어 충북과 제주에서 각각 1체급 우승을 차지했다.

인천의 해비급 전명환선수는 결승전에서 광주의 이상학선수를 맞아 1회 4:3, 2회 9:7, 3회 5:4의 높은 득점을 올리며 총 18대 14라는 태권도 경기 사상 최대의 점수를 기록하는 열전을 보인 끝에 판정승을 거두고 태권도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결승에 유일하게 미들급 이광중선수가 진출하였는데 전세계챔피언으로 충북대표팀선수였던 이동준씨(영화배우 겸 탤런트)가 경기장에 찾아와 충북대표팀스탠드에서 열띤 응원을 보낸 끝에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을 누렸다. **한민**

전국 22개 대학에서 출전 최고의 기량 펼친 태권도 축제



입상자들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격려하는 이정길 회장.

제20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대회 (93. 4. 22~24, 국기원)

전국대학 태권도인의 축제인 제20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가 맑게 개인 봄날의 축복 속에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참가한 이번 대학연맹의 경기는 어느때보다 짜임새 있고 알찬 경기였다.

전국 22개 대학에서 출전한 선수들은 개인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승

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순간순간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어 태권도 지성인으로 품위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특별히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격려와 후원속에 성황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대회 첫날 8강진출자 가려

경기장안은 벌써 한여름의 뜨거움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편급의 강성일(청주대)선수가 문성대(한체대)선수를 맞아 1, 2회전을 2:1로 뒤지다가 3

회 종료 15초전 문성대 선수의 오른발 앞돌려 차기를 강성일 선수가 왼발 점프뒷차기로 맞받아 안면을 강타하여 카운트 8까지 세며 강성일 선수가 승리를 장식했다.

밴텀급 경기에서는 김준(경원대)선수가 1차전에서 조정선(용인대)선수를 힘겹게 역전승하고 2차전에 올라 같은 학교인 강병선(용인대) 선수를 맞이하여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했다.

이어서 라이트급 경기는 양재훈(한체대)선수가 서배홍(제주대)선수에게 득점 2개를 내주었으나 경기운영에 다소 미숙한 서배홍 선수의 감점으로 인하여 판정승을 거두고 8강에 안착.

대회 둘째날 최정복선수 K.O승 거둬

남대부와 여대부의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다. 여대부 경기 역시 남대부의 열전 못지 않는 뜨거운 열전으로 관중들의 시선을 한곳으로 집중시켰다.

밴텀급 진용순(한체대)선수와 박은미(성신여대)선수의 경기는 3회전에서 진용순 선수의 들어찍기 공격이 그대로 적중해 스탠딩다운을 시켜 RSC승을 거두었다.

남자 웰터급 최정복(경희대)선수는 지창수(용인대)선수를 맞아 1회전 경기시작 6초만에 페인팅 모션에 이어진 오른쪽 앞발 들어 찌기로 안면 공격을 성공시켜 K.O로 승리를 장식했다.

불꽃튀는 접전벌인 결승전

대회의 마지막날 경기는 T.V 생중계를 위한 방송사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여자 미들급 결승전에서 이은주(성신여대)와 고내인(동명전대)선수의 경기가 펼쳐졌다. 이은주 선수는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앞돌려차기 몸통공격, 얼굴공격을 하면서 7:2의 판정승으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여자 헤비급 결승전에서는 추수연(용인대)선수가 장철(경희대)선수를 맞이하여 사력을 다



하는 경기를 펼쳤으나 장철 선수의 앞돌려차고 주먹치르기 공격에 밀려 판정패 함으로써 장철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남자 밴텀급 결승전에서는 이강희(단국대)선수가 김창균(청주대)선수를 맞이하여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우세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플라이급 결승전 역시 대회 마지막 불꽃처럼 활활 타올랐다. 고동완(한체대)선수가 조재성(경희대)선수를 맞아 1회전 오른발 밀어차기와 받아차기의 공격으로 1:1백중새, 2회전에서 고선수 경고 1개를 받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3회전에서 고선수의 계속적인 공격과 받아차기의 접전 끝에 고동완 선수의 우세로 대회를 승리로 장식했다.

대회를 마치며

B조 경기가 없어진 경기였지만 참가자 수는 여느 때와 같은 수준으로서 대회운영 면에서 상당히 알뜰하고 내실있는 경기였으며 병원의 의료지원을 받아 부상자 치료에 신속함을 보였다는.

한편 윤종완 실행이사(상명여대교수)의 TV 중계방송 해설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주위의 평가를 얻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 해주신 여러 이사님과 대회 진행을 위해 수고 해주신 권순만, 이재봉 차장,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준 송곡고등학교 태권도부에 감사사를 드린다. **태권**

〈대학연맹 지병윤 편집위원〉

서울 문일중, 대원여중, 부산 개금고, 리라공고 부별 종합우승



선수들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하는 태권도계 인사들.

제20회 한국 중·고 연맹회장기 대회 (93. 5. 11~15, 잠실학생체육관)

중고연맹대회는 성숙과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 한국 태권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올해는 장준웅 신임 회장이 취임하여 제20회 회장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청년기를 맞은 본 대회를 보다 더 알찬 대회로 치르었다. 특히 양보

다 질을 우선으로 하는 대회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참가 선수를 팀으로 제한하여 예년에 비하여 50여 개교가 적은 154개교에서 863명이 출전하였으나 선수들의 경기력은 어느 대회보다도 뛰어났다고 본다.

5월 11일부터 잠실학생체육관에서 5일간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개회식은 광영 고등학교 밴드부의 힘찬 팡파레속에 개회가 선언되고 대회장의 대



중등부 명문으로 떠오르며 종합우승을 차지한 문일중학교

회사에서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발맞추어 태권도 가족 모두 새로운 각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자세로 우리 태권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대한태권도협회장은 중고연맹대회가 국내 태권도 경기력의 건인자 역할을 한 전통의 대회로 성장해 왔으며 이대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배움터로 가치가 충만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는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5일간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관정에 커다란 무리가 없이 순조롭게 경기가 치러졌다.

선수들은 긴아긴 시간 끈기와 인내로 이 대회를 위하여 제각기 피나는 노력으로 기량을 연마하고 출전한 때문에 경기 내용면에서 선수들간의 기량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지역간의 격차가 없어진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단체 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다른 해보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울 문일중, 대원여중, 부산 개금고, 리라공고가 각각 부별 우승을 차지했다.

부별 최우수선수로는 박희철(인천관교중), 이정숙(서울대원여중), 유용진(부천 정명고), 양춘희(전북김제북고)가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폐회식에서는 명예대회장인 이유헌 전 중고연맹 회장이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승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듯이 오늘의 패자도 새로운 각오와 용기로서 재도전의 기회를 위해 열심히 태권도를 연마하여 내일의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어 줄것을 당부하였다.

경기 마지막까지 큰 무리없이 경기에 협조한 감독, 코치, 선수 및 심판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태권**

〈중고연맹 김부영 편집위원〉

대학생 선배 누르고 6체급 고교 선수들이 석권



93년도 전국여자개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93. 5. 19~20, 국기원)

여성 태권도계의 실력자는 누구인가, 유망주로 떠오르는 여성 태권도선수는 누구인가를 한눈에 점치게 하는 전국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5월 19일과 20일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33개팀에서 총 116명이 출전한 가운데 벌어진 이번 대회는 상명여대의 박영신과 박선미가 밴텀급과 미들급의 우승을 차지한 것 외에는 6체급을 고교선수들이 석권하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편급의 김은미(태원고)는 경성여실고의 윤영정을 맞아 1회에 오른발 돌려차기를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2득점을 올리고 이어 왼발 내려차기로 득점을 올려 초반부터 3:0으로 앞선 가운데 2회에 2:1, 3회 시작후 2:1점수를 내며 총 7:2 득점차

가 벌어지자 종료전 김은미에게 주심직권승(RSC)이 선언되었다.

플라이급의 박현기는 이번 대회를 통해 유망주로 떠오른 경우.

결승에서 상명여대의 강선경을 맞아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는 가운데 주특기인 오른발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총 6:3의 득점차로 판정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페더급의 이지은도 주특기인 왼발 돌려차기로 예선을 통과한 가운데 결승에 올라 충북체고의 김성자를 맞아 1회전에 3득점을 올리는 기술을 구사하는 가운데 1회말 주심직권승을 거두었다.

헤싱여고는 여성 태권도 명문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라이트급의 한은진과 헤비급의 정명숙이 우승을 거두는 패거리를 올렸다.

웰터급의 조미례(리라공고)는 문산중고의 유은진을 맞아 주특기인 왼발 뒷차기 등을 발휘하며 5:2 판정승을 거두었다. **태권도**

소개-'93년도 국제대회 파견 한국 대표선수 프로필

'93 국가 대표 최종 선발전 뱀띠급 1위

제 11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핀급:진승태

소속: 한국체육대학
현단: 4단
신장: 168cm
체중: 54kg

학력: 전주완산국·전주완산중·경남체고졸·한
체대 2학년

경기실적: '92 대통령기 핀급 1위

'92 73회 전국체육대회핀급 1위

'92 국가대표최종선발 핀급 1위

'92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핀급 2위



플라이급:박재성

소속: 한국체육대학
현단: 4단
신장: 168cm
체중: 58kg

학력: 청학국·영남중·부산체고·한체대 4학년

경기실적: '92 국가 대표 최종 선발전 플라이급 2위

'93 국가 대표 최종 선발전 플라이급 1위



뱀띠급:김인경

소속: 한국체육대학
현단: 4단
신장: 172cm
체중: 58kg

학력: 성남제2국·한영중·성동고졸·한체대 3학년

경기실적: '90 월드컵대회 핀급 1위

'91 72회 전국체전 플라이급 1위



페더급:김병철

소속: 국군체육부대
현단: 5단
신장: 178cm
체중: 64kg

학력: 인천부평국·인천부평중·인천광성고·한
체대졸

경기실적: '89 3회 월드컵 대회 페더급 1위

'89 3회 월드컵게임 페더급 1위

'90 2회 세계대학 선수권 페더급 1위

'91 최우수 선수선발 페더급 1위

'91 72회 전국체전 페더급 1위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페더급 1위

'93 국가대표최종선발전 페더급 1위



라이트급:박세진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77cm
체중: 72kg

학력: 서울명일국·서울한영중·서울체고졸·경
희대 4학년

경기실적: '89 3회 프레월드게임 라이트급 1위

'92 3회 세계대학선수권 라이트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라이트급 1위



웰터급:임영호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87cm
체중: 75kg

학력: 감천국·삼성중·부산체고졸·경희대 3학년

경기실적: '91 우수선수선발대회 웰터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 웰터급 1위

'92 10회 아시아 선수권 월터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 월터급 1위



미들급: 이동환

소속: 서울체육고등학교

현단: 3단

신장: 185cm

체중: 80kg

학력: 경기 문산국·서울체중·서울체고 3학년

경기실적: '92 대통령배 대회 미들급 1위

'92 전국체전 대회 미들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미들급 1위



헤비급: 김제경

소속: 국군체육부대

현단: 4단

신장: 186cm

체중: 86kg

학력: 울산 병영국·울산중앙중·울산공고·동아대졸

경기실적: '92 73회 전국체육대회 헤비급 1위

'92 우수선수 선발대회 헤비급 1위

'92 10회 아시아 선수권 헤비급 1위

'92 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헤비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1위

제 4 회 세계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



핀급: 유수진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60cm

체중: 43kg

학력: 서호국·수일여중·오산여중고졸·경희대 3학년

경기실적: '90 월드컵 핀급 3위

'91 월드컵 핀급 3위

'92 세계대학선수권 핀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핀급 1위

'93 세계대학연맹전 핀급 1위



플라이급: 유수미

소속: 리라공업고등학교

현단: 2단

신장: 168cm

체중: 48kg

학력: 군산 경포국·군산월명중·리라공고 3학년

경기실적: '92 최우수 선수권대회 플라이급 2위

'92 연대총장기 플라이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플라이급 1위



밴텀급: 원선진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60cm

체중: 53kg

학력: 수원매원국·수성여자중·수원효원고졸·경희대 1년

경기실적: '89 제2회 여자세계선수권 플라이 1위

'92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밴텀급 1위

'92 최우수선수 선발 밴텀급 3위

'92 국가대표 선발전 밴텀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밴텀급 1위



페더급: 이승민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70cm

체중: 53kg

학력: 성남제2국·송신여자중·은광여고졸·경희대 2년

경기실적: '90 9회 아시아선수권 밴텀급 1위
'91 월드컵 밴텀급 1위
'92 세계대학선수권 밴텀급 1위
'92 최우수 선수선발 페더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페더급 1위
'93 춘계 대학연맹전 페더급 1위



라이트급: 박경숙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63cm
체중: 58kg

학력: 제주서귀중앙국 · 서귀중앙여중 · 은광여고
졸 · 경희대 1학년

경기실적: '89 3회 월드컵 페더급 3위
'92 최우수선수 선발 라이트급 2위
'93 춘계대학연맹 라이트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라이트급 1위



웰터급: 김미영

소속: 용인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72cm
체중: 63kg

학력: 강화국 · 강화여중 · 덕신고졸 · 용인대 4학년
경기실적: '92 최우수선수권 대회 웰터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웰터급 1위



미들급: 박은선

소속: 고양여고
현단: 2단
신장: 167cm
체중: 63kg

학력: 백마국 · 고양여중 · 고양여고 3학년
경기실적: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미들급 1위
'93 국가대표 1차선발 미들급 1위

'93 중고연맹 미들급 3위



헤비급: 정명숙

소속: 혜성여고
현단: 2단
신장: 175cm
체중: 70kg

학력: 태능국 · 공릉중 · 혜성여고 3학년
경기실적: '92 10회 아시아 선수권 헤비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 헤비급 1위
'93 여자개인 선수권 헤비급 1위
'93 용인대학 총장기 헤비급 1위

제 4회 월드컵 게임 배권도 경기



플라이급: 서성고

소속: 춘천 군청
현단: 4단
신장: 170cm
체중: 61kg

학력: 광희국 · 서울체육중 · 동성고 · 한체대졸업
경기실적: '90 제2회 세계대학선수권 핀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 플라이급 1위
'92 제10회 아시아선수권 플라이급 1위
'92 올림픽 대회 플라이급 3위



페더급: 김정호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73cm
체중: 69kg

학력: 서울 한강국 · 경희대 2학년
경기실적: '92 73회 전국체전 페더급 1위
'93 국가대표 2차 선발전 페더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페더급 2위



웰터급: 장종오

소속: 용인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85cm

체중: 75kg

학력: 약대국 · 부천북중 · 정명고 졸업 · 용인대 3학년

경기실적: '92 27회 대통령기 웰터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 웰터급 1위



헤비급: 김현일

소속: 서울지하철공사

현단: 4단

신장: 186cm

체중: 82kg

학력: 용인대 졸업

경기실적: '88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2위

'89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2위

'89 제3회 월드컵대회 헤비급 3위

'90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3위

'90 우수선수선발전 헤비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1위



플라이급: 모선영

소속: 한체대

현단: 3단

신장: 157cm

체중: 43kg

학력: 명성여중 · 인덕공고 · 한체대 3학년

경기실적: '90 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3위

'92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핀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 플라이급 1위

'92 제25회 올림픽파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플라이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 플라이급 1위



웰터급: 조항미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67cm

체중: 65kg

학력: 산곡국 · 복인천여중 · 인천체육고 졸업 · 경희대 2학년

경기실적: '91 국가대표선발전 웰터급 1위

'91 제3회 세계여자선수권 웰터급 3위

'92 제3회 세계대학선수권 웰터급 2위

'92 춘계대학연맹 웰터급 1위

'93 국가대표선발전 웰터급 1위



태권도 운동과 에너지 시스템

태권도를 비롯하여 모든 운동은 최대의 효과 획득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번호부터 연재되는 체육과학연구원 윤성원 실장의 태권도 트레이닝 방법론은 선수를 육성하는 팀 지도자뿐 아니라 도장에서 일반 수련생을 지도하는 사범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훌륭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목 차

■ 태권도와 에너지 시스템(이번 호)

- ② 무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③ 유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④ 유연성 향상과 스트레칭
- ⑤ 태권도와 운동상해

I. 서론

태권도 운동은 국위를 선양하는데 그 공헌도가 매우 높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한국의 스포츠이며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도 많은 국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인 태권도가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과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의 스포츠로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문명의 발달은 산업의 자동화를 가져왔지만 이와 함께 활동시간의 감소를 가져와 이 시대뿐 아니라 후세대에게 활동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인체의 체형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위기마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태권도 도장을 이용하여 수련에 의해 체력향상을 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학생의 경우 그 태권도 도장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에게 신체 건강 및 체력육성을 인도하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운동지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운동은 심신을 건강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능력, 질병에 대한 병원체에 대한 면역기능 향상 및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활동으로 특히 성장기 시기에는 뼈나 근육발달에

성장기 시기에 운동지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일 때 체격 및 체력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성장기 시기에 운동지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일 때 체격 및 체력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호부터 소개되는 태권도의 트레이닝 방법 소개는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작성에 많은 도움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먼저 지도자는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과정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프로그램 작성시 운동활동을 통한 체력향상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I. 에너지 공급과정

인간의 활동은 근수축이 시작하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활동의 시초는 근수축이라 할 수 있다. 인체가 이러한 근수축을 통하여 활동을 전개하려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근세포내에 저장되어 있는 아데노신 3인산(ATP: adenosine triphosphate)의 분해를 통하여 방출되는 에너지가 근수축의 에너지로 이용되는 것이다. 근수축에 직접적인 에너지인 아데노신 3인산은 섭취된 음식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합물로 이 아데노신 3인산인 ATP가 아데노신 2인산(ADP)과 인산염(Pi)로 분해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골격근의 수축에 관여한다.

이렇게 근수축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강도에 따라 아주 짧은 시간에 공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2분이내에 아니면 무한적 시간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인체는 구성되어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운동강도가 매우 높을 경우는 에너지 공급이 단 몇초만에 에너지 공급의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운동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운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오랫동안 운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 공급과정을 생리적 측면에서는 3가지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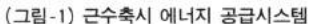
1. 인원질 시스템(ATP-PC System)

섭취한 음식물의 화학적 과정을 통한 분해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생성하며 그 에너지원은 고에너지 인산인 아데노신 3인산(ATP)의 형태로 저장된다. 저장된 에너지원 복합물은 특수 단백질인 효소에 의해서 결합 및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분해시 발생하는 에너지가 근수축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중 ①에 해당하는 인원질 시스템은 최대강도로 운동을 수행할 때 ATP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ATP의 분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합성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간은 ATP와 PC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용량은 체

하고 있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시 방법은 많은 반복 횟수보다는 강한 부하에 의한 짧은 시간의 최대 운동을 짧게 실시하여 그 향상책을 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원질 시스템에 의한 근수축시 에너지 공급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근육에 축적되어 있는 인원질의 소모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공급을 위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시스템에 의하여 근수축이 일어나도록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형태를 젖산 시스템이라 한다. (그림-②)에 해당하는 이 형태의 에너지 공급시 나타나는 운동강도는 최대운동 강도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최대운동강도에 가까운 운동강도 즉 최대하운동이라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운동후 매우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며 피로를 매우 느끼는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피로는 에너지 공급과정에서 생기는 젖산이란 피로의 부산물 때문에 젖산 시스템이라 부른다. 이때의 에너지 공급은 근육속의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에너지에 의해서 ATP와 PC를 각각 재합성하여 보충하면서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부산물로 젖산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혈액이나 근육에 축적되는 젖산의 함량을 측정하여 운동중 ATP의 공급방법이 어



중 1kg당 약 100cal이다. 이들 에너지의 공급 속도는 초당 13cal로 최대 강도로 운동을 수행할 때 ATP와 PC가 최대한도로 동원되었다면 이론적으로 약 8초만에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할 수 있다(공급시간=100/13=약 8초). 따라서 100m와 같이 최대 운동능력으로 운동을 수행할 때 에너지 공급은 이러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이러한 에너지 공급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즉 스피드나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근육의 량을 증대시켜 즉 근 비대를 비롯하게 하여 인원질 량을 많이 축적시키는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훈련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스포츠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근비대 향상을 꾀

수십초간 최대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결정 요인은 근 글리코겐의 축적량과 높은 젖산 축적에 견딜 수 있는 내성능력이 우수하나, 그렇지 못하나가 운동 수행능력의 차이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이러한 요인을 참조하여 운동지도에 신경써야 한다.

땀게 이용되었는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최근 컷볼(귀의 끝)이나 손가락 끝에서 미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젖산의 축적상태를 간단하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 젖산 시스템에 의한 운동수행력을 판정하는 좋은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공급은 시간경과에 따라 한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 축적될 수 있는 에너지는 근 1kg당 약 230cal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소모되는 에너지는 초당 7cal이다. 따라서 축적된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30/7cal로 약 33초가 된다. 따라서 산소의 공급없이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인원질 시스템시 8초와 33초가 합해진 약 41초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은 육상의 달리기 운동종목에서 350~400m를 전력질주로 달릴때 소요되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운동종목에서 무산소성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벌 형태로 400m 달리기 운동을 중간휴식을 취하면서 반복해서 수행하는 트레이닝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이를 태권도 운동과 관련시켜 본다면 태권도 경기의 경우 3분 3회전 경기로 경기시간으로만 본다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공급만 생각한다면 젖산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운동형태가 치고 빠지는 운동의 반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원질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는 경기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즉 수십초간 최대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결정 요인은 근 글리코겐의 축적량과 높은 젖산 축적에 견딜 수 있는 내성능력이 우수하나, 그렇지 못하나가 운동 수행능력의 차이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이러한 요인을 참조하여 운동지도에 신경써야 한다.

3. 산소 시스템(O₂ System)

운동 강도가 비교적 약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시키는 운동의 경우 이때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충분한 산소 공급에 의해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영양 물질과의 화학작용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가 공급됨으로써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그림-③에 해당). 즉 포도당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ATP와 부산물인 젖산의 재합성 과정인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과는 달리 운동 강도가 약하고 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에너지 생성인 화학반응이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랩스 회로로 넘어가게 된다. 이 회로에 들어가게 되면 다량의 ATP가 재합성되고 물과 탄산가스가 생긴다. 이러한 반응은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공급된 상태에서 ATP를 만드는 곳이라 일반적으로 인체의 에너지 생산 발전소라 부르고

운동시간과 운동강도를 고려하여
운동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과정을
고려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있다. 이와 같은 운동강도가 낮은 산소 시스템에 의한 운동 실시는 근육이나 혈액에 축적되는 젖산과 관련시켜 본다면 산소 시스템에 의한 낮은 강도 운동시 혈중젖산 농도는 안정시(0.7-2.0mmoles/L)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데 운동을 오래동안 유지하다 보면 혈중젖산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수준(4mmoles/L)을 넘게 되는 시점의 운동강도 또는 산소섭취량을 무산소성 역치 수준(Aerobic Threshold)이라 하여 지구성 운동선수의 경우 이 수준을 이용하여 운동 수준을 판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무산소성 역치 수준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60%인데 반하여 지구성이 우수한 선수의 경우는 70-90%까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산소 시스템에 의한 운동방법인 유산소성 운동이 태권도의 경우 주 에너지 시스템이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지도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신운동을 통해 신체의 균형적 발달을 위한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이와 같은 산소 시스템에 의한 전신 지구력 향상도 피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에너지 공급과정도 지도자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III. 결 론

운동활동의 시초인 근수축은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인원질, 젖

산, 산소시스템인 3가지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태권도의 경우 운동 양식을 살펴 보면 강한 운동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운동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질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인 무산소성 시스템에 의해 에너지 공급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운동시간과 운동강도를 고려하여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과정을 고려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의 경우, 태권도를 통한 전반적인 체력육성이 요구되는 성장기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무산소성 운동 뿐 만 아니라 산소시스템인 유산소성 운동을 통해 심폐지구력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전신 체력 육성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따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음호에는 인원질, 젖산 시스템에 의한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태권도**



윤 성원(尹誠源)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운동생리학 전공)
현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운동처방 실장

最古의 무도, 最高의 무도

어느나라의 권법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권법이
최초의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권법이
가장 우수한가 이다.

모든 무도자들은 자신이
最古의 무도에 몸담고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무도를
最高의 무도로 빛내야겠다는 각오를 먼저
가져야 한다.



강기석 / 경향신문 체육부기자

10여년전에 한국을 방문중인 崔永宜씨를 취재
차 만난적이 있다.

요즘 모 스포츠전문지에 극화로 소개되고 있는
국진가라데의 명인, 바로 그 사람이다.

그당시에도 이미 동양무술가로 널리 명성을 떨
친 인물이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인터뷰에 임
했던 것인데 막상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 역시 그저 맘씨 좋고 품씨 좋은 중년
신사의 하나라는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소뿔을 자르던 이야기, 손가락으로 동전을 구부
리고 주먹힘으로 촛불을 끄던 이야기 등 「왕년의
무용담」을 신나게 풀어 놓을때에는 나이에 걸맞
지 않은 순진함까지도 보였다.

그는 우리말이 아주 서툰것은 아니나 어려운 말
이 오갈때는 배석했던 친동생-지금도 몇몇 신문
이나 잡지 등에 골프칼럼을 쓰는 언론계의 대선배
다-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등 아주 열심히 인터
뷰에 응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동양무도의 근원으로 홀
려갔다.

무협소설을 탐독했던 탓인지 소림사의 달마대
사나 무당산의 張三泰이니 王宗의 내가권이니 하
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달달외우고 있었던 나는
당연히 동양무술의 宗祖는 중국이라는 막연한 생
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런 상식 아닌 상식밖에 없었던 나에게
최영의씨는 전혀 뜻밖의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예전 동양에서는 어떤 나라에서건 맹수와 짐작자들에게 대비한 독자적인 무기와 전술체계를 발달시켜 왔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은 창, 일본은 칼, 한국은 활이 특히 뛰어났다.

창이나 칼은 1:1의 단병접전에서 유리하지만 활은 오히려 반대다.

이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적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활을 버리고 맨주먹으로 육박전을 벌일 수 있도록 독특한 권법을 개발했다.

이것이 고구려나 신라때였는지 아니면 그보다 먼저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기로 중국에 흘러갔고 중국의 당나라때 일본에까지 소개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라테를 唐手라 썼고 혹은 오키나와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오키나와테라고도 했다. 그러던 것이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唐手대신에 발음이 같은 空手로 바뀐 것이다.」

가라테의 명인으로부터 동양무도의 원조는 한국이라는 설을 듣고 필자는 대단히 기분이 좋을 수 밖에 없었다.

역시 최영의씨는 일본에서 활약하는 가라테의 명인이기전에 몸속에 뜨거운 배달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이었던 것이다.

최 근 일본의 가라테계가 94년 히로시마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90년 북경아시안게임때 중국이 우유를 아시안 게임종목에 집어넣어 국제적인 스포츠종목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가라테가 더욱 쾌척한것은 태권도보다 훨씬 많은 금메달(가라테 11개, 태권도 8개, 우수 6개)을 걸어 자기종목의 비중을 크게 높인데 그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태권도를 채택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이다.

가라테보다 훨씬 먼저 스포츠화의 길을 걸어 비록 시범종목이지만 두번씩이나 올림픽에 참여했던 태권도에 대한 대접이 말이 아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마도 태권도

에 대한 라이벌의식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태권도는 원래 가라테에서 시작된 것이다』고 떠들어대며 실력자들 등에 업고 가라테협회를 만든다느니 대한체육회에 가맹한다느니 하면서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국적불명의 인사들이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알기로도 우리 고유의 무도는 문치위주의 조선시대와 36년간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그 원형을 상실했고 실제로 많은 태권도계의 원로들이 젊었을 때 가라테를 수련하기도 하는 등 태권도가 가라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태권도의 가치를 치켜든 이래 수많은 국내무도인들과 해외파견 사범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잃어버렸던 한국무도의 원형을 다시 찾아 태권도에 결집시키면서 이제는 국제스포츠계에서 「가라테보다 강한 태권도」의 명성을 얻게됐다.

초창기에 몇몇 사범들이 「코리아 가라테」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면서 굴복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있고 창의력있는 사범들이 「태권도」를 지키고 키워왔던 것이다.

이런 피눈물나는 과정들을 외면한 채 자기의 이익에 집착하여 대국노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최영의씨의 발셋을 자각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몸담았던 태권도를 버리고 기꺼이 가라테의 종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崔永宜씨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전해주겠다. 「그러나 어느나라의 권법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권법이 최초의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권법이 가장 우수한가 이다. 모든 무도자들은 자신이 最古의 무도에 몸담고 있다고 자랑할일이 아니라 자신의 무도에 最高의 무도로 빛내야겠다는 각오를 먼저 가져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실력이 최우선이다.」 **태권도**

“성인 수련생의 증가는 편의시설 투자와 비례”

이해동 사범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을지, 태권도 지도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도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해동 사범

전국에 5천여개에 달한다는 태권도장이 있지만 성인들이 태권도를 하기 위한 태권도장은 몇안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는 일반 성인들의 물음에 선뜻 추천해줄만한 도장이 없는 것이다. 보통 어린이 수련생들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일선 도장에서는 한두명의 성인을 위하여 시간을 따로 배정하기 어렵기도 하거나와 어린이들과 함께 태권도를 배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을 단련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태권도장의 문을 두드리는 성인들 대부분이 아기자기 아이들 놀이터 정도로 꾸며진 태권도장을 보고는 여기는 어린이들이나 오는 곳이구나 하고 발길을 돌리기 십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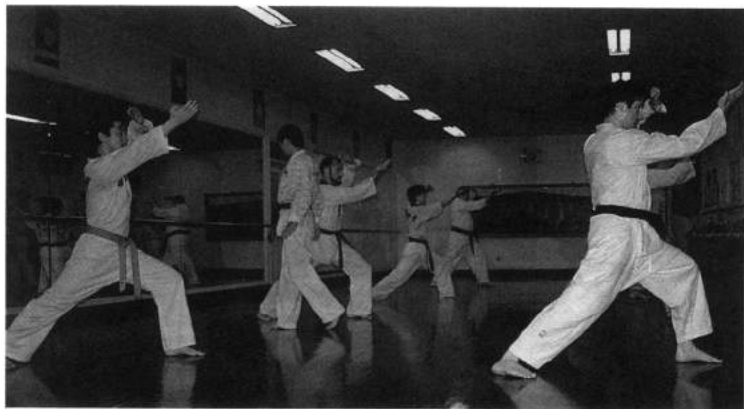
한남동 힐탑아파트 상가에 자리잡은 해동체육관은 성인들의 태권도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우선 태권도장의 실내 분위기가 민족 무예수련장의 느낌을

갖게 해준다. 수련장의 크기는 어느 도장과 비슷하지만 경감한 느낌을 준다. 중앙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양쪽벽에는 태권도를 주제로한 묵화와 태극무늬 연이 줄지어 장식되어 있어 한국의 정서를 물씬 풍기게 한다.

이렇게 실내 분위기가 고전적인 반면 그외의 시설들은 현대적이다. 20여종의 운동기구를 갖춘 웨이트 트레이닝장 뿐만 아니라 남녀 편의시설이 어느 도장에 비해 잘 되어 있다. 편의시설은 옷장을 비롯하여 목욕탕, 세면대, 대형 거울, 비누, 수건, 머리빗, 드라이기 등이 비치되어 있고 쇼파도 있어 어느 호텔에 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해줄 정도이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와 종이컵도 있다.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이곳에 들러 도복으로 갈아입고 태권도로 땀을 흘리며 일상 업무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며 힘찬 내일을 준비



해동체육관에는 국내 성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수련하고 있다.

한다.

이해동 사범은 태권도장의 시설에 대해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지 30년이 됩니다. 제 인생이 바로 태권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권도장은 제 삶의 터전인 만큼 제가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범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을지, 태권도 지도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도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해동 체육관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유엔빌리지에 위치하고

있어 각국의 대사관 직원들을 비롯한 외국인 수련생이 40여명이 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40여명쯤 되는데 그들은 한남동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북동이나 광명시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멀어도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에게는 이만한 도장을 찾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꾸준히 수련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외출할 때를 제외하곤 언제나 도장에서 도복을 입고 사는 이사범은 혼자서 수련생들을 모두 가르치고 있다.

태권도 지도 시간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부,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2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부 지도를 하고 있다.

이사범의 태권도 지도는 무엇보다도 무도정신을 길러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러나

라 수련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한 태권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7단의 고단자인 이사범은 태권도 품새의 창작에도 애를 쓰고 있다. 태권도 수련 인생 30년을 맞고 있는 그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 태권도를 평생 수련해온 고단자로서 태권도의 품새를 창작, 보급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한편, 10여년 후에는 산수가 수려한 야외나 깊은 산속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대형 태권도장을 지어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태권도를 통한 극기훈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종주국을 찾는 태권도 수련생들을 위한 합숙 수련장소로서 손색이 없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태권도 문화의 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태권도**

수련생 어머니들의 태권도 교실

“주부들에게 자신있게 태권도를 권하고 싶다”는
어머니 수련생들

“태권도란 무엇인가를
인식시키고 어머니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함으로써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무료로
지도하기 시작”



신석환 사범

태권도장에 자식을 보낸 부모
들은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지,
도장에서 사범님 말씀을 잘 듣
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태권도가 사실 무엇
인지를 모르는 어머니들은 아이
가 몇개월 또는 1, 2년 태권도
를 수련하다가 국기원에 가서
승품심사를 보고 검은띠를 따게
되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태
권도를 그만두고 또다른 예능교
육으로 눈을 돌리기 쉽다. 이러
한 부모들에게 태권도란 무엇인
가를 인식시키고 어머니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함으로써 태권도
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문정동에 위치한 중앙태권도
장에서는 수련생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1
시 30분까지 한시간씩 무료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어머니 태권도 교실에는 현재
15명의 어머니가 가입하여 태권
도를 수련하고 있다. 태권도 수
련은 준비운동과 발차기, 품새,

겨루기외에 스트레칭체조와 요
가로 실시된다.

서울 중앙체육관이 무료 어머
니 태권도 교실을 열고 태권도
를 지도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인 91년 봄부터이다.

“저희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
련하는 수련생들의 어머니들에
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일이
전화를 드려 태권도를 수련하실
것을 적극 권하여 5명의 어머니
들이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배
우기 시작하셨다”는 신관장은
이중 2명의 주부가 계속 수련하
여 2단까지 승단하는 실력을 쌓
았다고 한다.

92년 10월에 2단을 획득한바
있는 한현정씨(35세)는 국민학
교 3학년생인 박문용(2품) 어린
이의 어머니.

“태권도를 남자들이나 하는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당
시 8살이던 아들의 태권도 관장
님께서 적극적으로 태권도를 권
하였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어머니 수련생들

권도장이라 만신반의하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태권도 도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한씨는 1년만에 남편과 아들의 따뜻한 격려와 열렬한 지지속에 1단 심사를 무사히 마쳤다.

“단을 따던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고 회상하는 그녀.

태권도 수련으로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된 것은 2단 승단심사 때 였다 한다.

“당시 은광여고 선수와 겨루기 시험을 하였는데 그때 맞았던 고통과 패배감으로 태권도를 그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그만두기엔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던 아들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한씨는 이렇게 해서 계속 태권도를 수련, 다시 2단에 도전, 거뜬히 합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에 사는 친언니 한현정씨(37세)에게도 태권도를 배울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오는 6월이면 1단 심사를 보게될 언니 한씨는 건강체질이 아닌데도 허리까지 종종 아팠으나 동생을 따라서 지난 1년간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매일 태권도로 몸을 풀고 나면 온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져서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게 보낸다고 한다.

특히 이들 자매는 태권도 품새를 배우면서 예전에 공부하던 학창시절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이 젊어지고 어느 정도의 수련기간을 거치면 승단이라는 목표를 갖게됨으로써 보람도 느낀다고 한다.

이들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려는 많은 주부

들에게 자신있게 태권도를 권하고 싶다고 한다.

어머니들의 호응이 좋자 신관장은 수련생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태권도 수련을 유도하였으나 한명도 신청자가 없어 무위로 끝났다고 한다.

그러나 승단심사등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부형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조기 축구회를 만들어 일요일날 하루만이라도 공을 차면서 뛰어보자고 권유하자 많은 부형들이 호응, 현재 20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일요일에는 동네에 있는 평화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여 축구시합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근의 도장에도 수련생 부형을 중심으로 조기축구회를 결성하도록 권유해 도장간 축구시합등을 통한 친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한다. **FM2**

소년체전에 광주대표로 4명이 출전한 태권도 강팀

“우람한 무등산 품에 안기어
푸르른 숲 굳센마음 동백꽃 정
열로 날마다 새롭게 학업을 단
는다.……

배우자 진리와 사랑의 샘터
문성중 우리학교 길이 빛내자”

빛고를 광주에서 봉선골 깊숙
한 곳에 자리한 문성중학교.

옛선조들이 무예와 수업을 단
던 곳에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올
바른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 주

고자 풍산 이재욱(李載郁) 선생
이 교육의 원대한 이상을 실천
하고,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며,
성실·근면·창조를 교육이념으
로 82년 학교법인 풍산학원을
설립하여 85년 3월 첫 입학식을
갖은 이래 6회 졸업생을 배출하
였다.

93년 광주의 중학교 태권도계
는 일약 돌풍이 불어왔다.

지난 3월 23일 염주종합체육
관에서 개최된 소년체육대회 광



이기태 교장



올해 소년체전에서 2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문성중학교 태권도선수들과 박종선 지도교사.

주대표선발전에서 창설된지 2년 반 남짓밖에 되지 않은 문성중학교 태권도부가 중등부 11체급 중 핀급 김재훈, 플라이급 김의철, 밴텀급 강무희, 라이트급 김정민 등 4명의 선수가 광주대표로 선발되어 기존의 5~6개팀의 태권도 육성학교 중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 중, 국기원에서 열린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에서 광주가 획득한 성적-금메달 2명, 은메달 1명, 동메달 1명-중 핀급의 김재훈 선수가 1위, 플라이급 김의철 선수가 3위를 차지하여 관계자 및 임원들에게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다.

더구나 입상한 2명의 선수가 모두 2학년으로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큰 기대가 주목된다.

문성중학교 태권도부는 2년전인 91년 3월에 창설되어 현재 1학년 9명, 2학년 10명, 3학년 5명 등 24명의 선수가 김기태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후원으로 전원 장학혜택을 받으며 매일 열심히 수련하고 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 아래 선수들은 정상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 체육담당 박종선 교사와 함께 2시간씩 학교 운동장과 계단을 이용하여 체력훈련을 한 뒤,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백운동에 위치한 전남체육관 5도장에서 윤용석 관장(7단, 광주태권도협회 기획이사)의 열성적인 지도 아래 기술적인 경기력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

선수들은 기량이 뛰어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꽤 많다고 한다.

문성중학교는 운동장이 넓고 주위경관이 좋아 맑은 공기속에서 선수들이 체력 훈련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체육담당 박종선 교사는 “하계훈련과 동계훈련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태권도 꿈나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라며 결의에 차 있다.

소음에 시달리는 도심지 학교와는 달리 산새소리가 들리고, 솔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아름다운 교정에서 태권도 꿈나무들의 기합소리가 우렁차게 메아리친다. **태권**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태권도 명문대학으로 부상하는 군산대학교

전북협회는 태권도 발전을 위한 일선 팀의 지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건수회장, 이정학 전무, 이윤영 편집위원장 등이 전북 태권도의 명문대학으로 부상하고 있는 군산대학을 방문했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이자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성장해가고 있는 군산은 전주에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젊음이 넘치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대학 본관의 총장실로 가자 한연중 총장과 조성초 체육부장이 전북협회 임원들을 반갑게 맞이 하였다.

한연중 총장은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학교와 협회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의 태권도 발전 뿐만이 아니라 전북 체육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출신의 우수 고교 선수들을 서울 등 타지역으로 진학시키는 대신 군산대학으로

의 진학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전북 태권도인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태권도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태권도부의 현안 문제로 태권도부 전용도장이 마련되지 않아 체육관에서 타 종목과 함께 수련함으로써 충분한 수련시간 확보 등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학교에서는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전용도장을 마련해 태권도부를 대학 제일의 명문팀으로 키워준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자 한총장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보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한편 현재 남자부만을 육성하고 있는 군산대는 앞으로 여자부도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의욕을 보이며 협회와 대학간에 자주 만나 태권도 발전과 선수육성에 대해 상의해나가자고 했다.

이건수회장은 군산대 한총장



한연중 총장



태권도부 선수들과 고봉수코치(뒷줄왼쪽끝)



학교와 협회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의 태권도 발전 뿐만이
아니라 전북 체육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



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의 장
시간에 걸친 태권도 현안 문제
해결과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태권도부를 육성한다면 좋은 결
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
으로 협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좌담을 마무리하며 이진
수회장은 한연총총장에게 군산
대 태권도 선수 육성 지원금으
로 1백 50만원을 전달했다.

현재 군산대 태권도부는 고봉
수코치가 지도하고 있으며 7명

의 태권도부원이 활약하고 있
다.

핀급: 이정훈(체육학과 2학년)
벤텀급: 김진홍(무역학과 2학년)
페더급: 이남규(해양학과 1학년)
라이트급: 조동진(체육학과 1학
년)
웰터급: 박태수(행정학과 2학년)
미들급: 김억조(일어일문학과 1
학년)
미들급: 김학래(체육학과 3학년)
헤비급: 김경진(체육학과 2학년)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태권도

충남경찰청 상무관, 초중고생들의 무도 수련장으로 개방



충남경찰청은 92년 5월 29일 상무관 개방 기념식을 갖고 청소년들의 태권도 수련의장을 마련한 이래 태권도 보급 및 시민과 가까운 경찰상 정립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경찰관들의 무도 수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기로 하고 무료로 태권도를 지도하게 된 것은 당시 충남지방경찰청장이던 구본우 현 경찰청 형사국장이 "믿음주고 사랑받는 경찰상" 정립을 지표로 삼고 평소 청소년 선도에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학교주변의 범죄 추방과 비행청소년의 선도활동의 일환

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 심신을 닦게 하자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상무관은 매일 학생들이 수업 을 마치고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국민학생, 5시부터 6시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상무관의 지도위원으로는 대전시협회의 이진수전무이사(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선 체육관을 운영하던 박승도사범이 직접 경찰에 투신, 전적으로 태권도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개방후 수련생 2백여명과 학부모등 시민들을 모신 가운데 시범행사를 갖기도 했으며 올해 6월 대전직할시협회에서 주최한 승품단 심사에서 27명이 응심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국민이 신뢰하고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개방된 상무관 태권도 수련장은 청소년 여가선용의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충효교육과 예절의 장소로서도 한몫을 하게 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태권**

<대전직할시협회>

쿠웨이트로 진출하는 전국가대표 정은옥씨

“쿠웨이트 여자 국가대표팀 육성하고 싶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석권하며 여성 태권도 라이트급의 제 1인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정은옥씨가 쿠웨이트로 진출한다.

여성 국가대표 출신으로 해외에 진출한 것은 전운순씨가 아프리카 가봉에 파견된 이래 두 번째.

정은옥씨는 원래 필드하키선수 출신으로 인천체고에 입학했으나 팀이 해체되면서 1학년 말부터 태권도로 종목을 바꾸어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해 타고난 체력을 바탕으로 기술을 연마해 이듬해부터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기 시작, 유망주로 떠올랐다.

정은옥씨는 이어 상명여대 체육학과에 진학하며 태권도 최강자로 자리를 굳히며 각종 대회의 우승을 휩쓸었고 91년도에는 라이트급 국가대표로 제3회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 92년 제 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을 비롯해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쿠웨이트로 나가게 된 배경은?

쿠웨이트에서 활동하던 장원근 사범이 귀국하여 현지에서 스포츠 클럽의 사범파견을 요청한다는 말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에서 태권도를 지도함으로써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쿠웨이트에 나가게 된다면 지도 대상은 누가인가?

아직 확실히는 모르지만 여성들을 지도하게

될 것 같다. 아랍권은 특히 여성들의 체육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매우높다고 알고 있다. 여성 태권도 활성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쿠웨이트 여자 국가대표팀을 육성하고 싶다.

—앞날의 포부는?

그동안 여러 선배 사범들의 노력으로 쿠웨이트내에서 태권도가 상당히 자리잡고 있다고 들었다. 여자 태권도는 아직 미개척 지대인 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여자도 남자 이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출국은 언제이며 귀국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

2년계약으로 오는 8월에 출국하게 된다. 2년 후에 상황을 보아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지도여건이 마련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태권도**



정은옥

- 1969년 출생
- 인천체고 · 상명여대 졸업
- 3단
- 제3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91) 우승
-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92) 우승
-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시범경기('92) 3위

태권도 소식

대한태권도협회

국제대회 파견 임원 선임

대한태권도협회는 6월 3일 기술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93년도 국제대회(세계대회, 월드컵게임)에 파견할 임원을 선임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앞서 8월 17일 미국 뉴욕 펜타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정기총회의 회의 대표로는 최세창 회장, 강원식 전무이사, 임춘길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그밖에 한국대표선수단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 11회(제4회 여자)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 단장: 송봉섭
(대한태권도협회 감사)

(남자부)



- ▲ 감독: 예조해
(강북협회 전무이사)
- ▲ 코치: 유수철
(리라공고 감독)
- ▲ 트레이너: 윤오남
(조선대학교 코치)

(여자부)



- ▲ 감독: 이진수
(대전협회 전무이사)
- ▲ 코치: 김영희
(서울지하철공사 감독)
- ▲ 트레이너: 박제희
(강원춘천군청코치)

제 4회 월드컵게임



- ▲ 감독: 양영모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홍보분과 위원장)
- ▲ 코치: 지용범
(청주대학교 코치)

체육진흥기금 1억 7천 2백만 원, 법인화 기금으로 적립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

가 44개 경기단체의 재정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체육진흥기금 80억원 중 1억 7천 2백만원을 배분받게 되었다.

따라서 2/4분기에 지원금의 25%인 4천 3백만원을 받은데 이어 3/4분기에 50%인 8천 6백만원, 4/4분기에 나머지 25%인 4천 3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재정자립지원금의 취지에 따라 법인화 추진 기금으로 전액 적립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선수 강화훈련 실시

대한태권도협회는 오는 8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제11회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남자 국가대표 8명을 지난 4월 11일부터 태릉선수촌에 입촌,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8월 14일까지 4개월간 실시 예정인 강화훈련을 통해 신체조건이 좋은 외국 선수에 대비한 난이도 높은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별 신체조건에 맞는 특기 기술개발, VTR을 이용한 경기 분석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정신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2차 고단자 (6~9단)심사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6월 19일(토) 국가원에서 고단자 상담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알림

태권도계 컴퓨터 통신망 체계구축 사업 무기연기

대한태권도협회는 92년도에 착수한 태권도계 온라인 정보망 체계구축사업을 사실상 무기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관심을 가져주신 태권도인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협회와 시도지부, 동록도장간의 정보공유와 상호교환을 위해 전국의 도장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올해 후반기부터 한국 PC 통신과의 협약을 통해 정보를 제공키로 했으나

전국 332개 도장 중 100여개 도장만이 단말기를 수령해 가는 등 호응도가 극히 미약, 이를 무기연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앞으로 일선 도장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처방안 등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멀지 않은 시기에 태권도계가 온라인 정보망을 통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9단 심사에 응시한 태권도 교수들.

6단에 32명, 7단에 17명, 8단에 9명, 9단에 7명 등 총 65명이 응시한 심사에는 태권도 최고수들의 품새가 절묘하게 펼쳐졌다.

공인 경기용품 몸통보호대 및 살보호대(여성용) 보완 개정

대한태권도협회는 92년 4월 15일 제정한 바 있는 경기용품

태권도 소식

중 몸통 보호구 및 여성용 살브대를 보다 안전하도록 보완 개정하였다.

몸통보호구의 외피, 방력판, 득점부위로 모양을 구분하여 보완하였으며 구조면에서는 보호부위를 규정하고 색상지정, 재질 및 표면처리도 보다 안전하게 바꾸어 선수들의 부상을 막고 경기력 발휘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한편 협회는 몸통 보호대의 경우 방력판의 경도를 60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다수가 규격 미달 제품임이 밝혀져 공인 용구 개발사에 이의 시정을 촉구한바 있다.

서울특별시협회

제13회 서울시 교육감기 대회 개최

서울시 협회는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6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첫번째 열린 본 대회에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은 동절기 동안 열심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소속 학교와 선수 개인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였다.

엄윤규 회장은 "81년도에 대회가 창설된 이래로 초·중·고등학교의 선수 육성과 우수선수

등용문이 된 전통을 살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고 수도 서울의 명예와 선배들이 쌓아놓은 영광 재현을 위해 굳센 정신력으로 훈련에 임해 주길 바라고 경기, 심판 요원들도 공정하고 신속한 경기운영과 판정을 통하여 모든 경기 주체와 학부모 관중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본 대회 입상전적을 보면 국교부 1위 은천국교, 2위 광희국교, 3위 강덕국교가 차지하였고 중등부는 1위 용곡중, 2위 단대부중, 3위 배명중, 고등부는 1위 동성고, 2위 서울체고, 3위 리라공고가 차지하였다.

제13회 서울시 초·중·고 개인 선수권대회 개최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초·중·고 개인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

초·중·고등학교 선수 500여명이 참가한 본대회에서 엄윤규 회장은 대회를 통해 참가 선수들은 지도자와 합심노력, 다양한 경기 기술을 습득하여 경기 문화 발전에 정진함은 물론 습득한 경기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 미래 태권도의 청사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소 침체되어가고 있는 학교 체육 현장의 태권도 분위기

월곡체육관 어버이날 축하 경로잔치



서울시협회 산하 등록 도장인 월곡체육관(관장 송봉섭)에서는 지난 5월 6일 어버이날을 맞아 상월곡동과 하월곡동 관내 65세 이상 노인 100여명을 초청하여 경노잔치를 성대히 치렀다.

수련생들에게 경노사상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

서 체육관내 수련생 100여명은 그동안 배워온 태권도 솜씨와 시범행사 등 묘기를 보여 참석한 노인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태권도 시범 행사를 마친 후에는 송봉섭 관장이 준비한 음식을 들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기를 일선의 지도자들이 쇄신시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본 대회 각부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국교부 11체급 각 10만원씩 110만원, 중등부 11체급 각 15만원씩 165만원, 고등부 8체급 각 20만원씩 16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체급별 우승의 영광과 함께 장학금을 받은 선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교부 : 이원상(화계국) 최왕진(망원국) 채의석(보광국) 임지광(광희국) 한석만(은로국) 김영백(정목국) 임경화(거여국) 황기석(고덕국) 전영인(거여국) 이영배(면목국) 한동훈(동교국)

▲ 중등부 : 안형준(사당중) 한정훈(동성중) 이유신(덕원중) 윤현식(단국중) 박창호(동성중) 우병현(한영중) 정지명(용곡중) 조영진(한양중) 김

유성(사당중) 최양식(한양중) 이창호(용곡중)

▲ 고등부 : 이영한(리라공고) 강성권(서울체고) 정충민(한성고) 장형근(송곡고) 박문수(성동고) 방영선(리라공고) 김창성(은곡고)

〈서울 박노규·김종오 편집위원〉

부산직할시협회

'93년도 제2회 승품·단 심사대회

부산 협회는 4월 18일 구덕실 내체육관에서 '93년도 제2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2,804명의 응시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1,149명 2품 432명 3품 126명, 1단 269명 2단 84명 3단 70명 4단 32명 5단 9명이며 지난 1회 심사대회시 우수도장으로 선정된 체육관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다.

▲ 수상자명단 :

벽산체육관(이진홍), 세종체육관(조석호), 경일체육관(조석호), 쌍용체육관(조현우)

부산 소년체육대회 개최

부산 협회는 지난 4월 19일 '93 부산소년체육대회를 구덕실 내체육관에서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와 많은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태권도 소식

이 대회는 각 교육청별로 실시한 예선전에서 우수한 선수들로서 우수한 기량과 열띤 용원 속에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하였다.

(종합순위)

- ▲ 중등부 : 1위 서부교육청, 2위 동부교육청, 3위 남부교육청, 4위 동대교육청
- ▲ 국민부 : 1위 남부교육청, 2위 동부교육청, 3위 서부교육청, 4위 동대교육청

제18회 교육감기 개인 및 단체전 전국체전(고등부 1차) 예선대회

부산 협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구덕실내체육관에서 400여명의 선수와 태권도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에 앞서 개회식에서 김차진 협회장은 「평소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태권도의 밝은 장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 든든하다」며 이 대회가 학교 태권도 발전의 초석이 되어 우수한 선수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거듭 강조하며 그간 대회 준비에 힘써준 각 교육청 관계자와 대회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대회 3일째 고등부 라이트급 결승에서 전국종별 선수권 등올해 전국대회 2관왕인 김정수(개금고)가 전유곤(부산체고)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9-4로 꺾어 라이트급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웰터급에서는 김민우(부산체고)가 월등한 기량을 과시하여 김종삼(동천고)에 RSC 승을 거두어 우승을 하였다. 한편 단체전에서는 개금고가 동천고를 3-0으로 꺾어 우승을 하였으며 동천고가 2위, 금정고가 3위를 차지하였다.

(고등부 체급별 우승자)

- ▲ 핀 급 : 이기철(개금고)
- ▲ 플라이급 : 배상덕(개금고)
- ▲ 밴 텡 급 : 김영길(금정고)
- ▲ 페 더 급 : 허태영(개금고)
- ▲ 라이트급 : 김정수(개금고)
- ▲ 웰 터 급 : 김민우(부산체고)
- ▲ 미 들 급 : 전경환(개금고)
- ▲ 헤 비 급 : 김영하(금정고)

제4회 부산태권도관장 체육대회 개최

부산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부산외국어대학 남산캠퍼스 잔디구장에서 350여 체육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4회 부산태권도관장 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김차진 협회장은 개회식에서 인정과 우정을 나누며 상부상조하는 즐거움을 가지게 된것을 전 태권도 가족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고 태권도인간의 화합과 친목을 강조했다.

각자회별로 선발된 선수들은 100M달리기, 400M, 800M계주와 축구로 시작 되었으며 특히 800M 계주와 축구 경기에는 각

지회장이 출전하여 지회의 명예를 위해 앞다투어 달렸고 각구 응원석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회열기를 뜨겁게 하였다.

또한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이사들로 구성된 한팀과 각분과 위원장, 부위원장을 한팀으로 하여 축구경기를 할 때는 전 관장들이 열렬히 응원을 하여 대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마지막 축구 결승전에서 사하구, 강서구의 연합팀과 해운대구, 동구, 영도구의 연합팀이 열띤 공방전을 벌여 강서, 사하구 연합팀이 승리를 하여 강서구 지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우승기와 부상을 받았으며 동래구 지회가 준우승, 사하구 지회가 3위, 장려상에는 금정구지회, 감투상에 해운대구 지회가 차지하였다.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제3회 대구 수창국교장기대회 겸 어린이태권도 대회

올해 세번째 실시하는 수창국교장기타기 겸 어린이태권도대회가 어린이 가장들이 장하금 전담과 자전거 100대를 경품으로 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대회에는 36개 국민학교에서 26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체급별 우승자

핀 급: 양상철(신암국)
플라이급: 김동민(침산국)
밴 텀 급: 조성현(고산국)
페 더 급: 이주영(아양국)
라이트급: 박진호(아양국)
라이트웰터급: 정성한(동문국)
웰 터 급: 황혜원(신천국)
라이트미들급: 고륜하(북대국)
미 들 급: 임효준(수창국)
라이트헤비급: 최홍석(수창국)

해 비 급: 서창용(신천국)

▲단체성적

1위: 아양국교
2위: 수창국교
3위: 신천국교
장려상: 침산국교
감투상: 신암국교

▲최우수선수상: 박진호(아양국)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인천직할시협회

심판강습회 및 경기규칙 강습회 개최

인천협회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용도장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판강습회 및 경기규칙 강습회를 실시했다.

6단 이상 3급 심판자격증 소

대구직할시협회

제2회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대구협회는 올해 두번째로 지난 4월 27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여 총 179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 보면 1품 1011명, 2품 458명, 3품 89명, 1단 98명, 2단 69명, 3단 54명, 4단 12명, 5단 4명이다.



1993년도 심판강습회 1993. 6. 10-12

장소: 인천실내체육관

태권도 소식

지자(2급), 4단이상 사범자격증 소지자(3급)를 대상으로한 심판 강습회는 6월 5일 교육과 함께 실기 및 필기시험을 치르었고 유단자 및 코치,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규칙강습회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했다.

광주직할시협회

제7회 교육감기대회 개최

광주직할시 태권도협회는 염주동 종합체육관에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제7회 초, 중, 고등학교대항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1차 선발전을 겸하여 개최하였다.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이틀간에 걸쳐 열띤 경연을 벌였는데 상무국교, 체육중, 체육고가 각각 단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각 부별 입상학교와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초등부 1위-상무국민학교
2위-하남동국민학교
3위-무등국민학교
감투상-중흥국민학교
장려상-동산국민학교
- ▲중등부 1위-광주체육중학교
2위-문성중학교
3위-복성중학교
- ▲고등부 1위-광주체육고등학교
2위-국제고등학교
3위-고려고등학교

제7회 국민학교 태권왕 겨루기 대회 개최

제7회 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왕기 겨루기대회가 5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염주 종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초등부 17개팀에 25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 대회에서 2년전 우승을 차지하였던 상무국민학교가 다시 종합우승을 하여 태권왕기를 차지하였다.

태권왕으로는 상무국교 김재승 선수가 선정되어 자전거와 트로피를 상품으로 받는 명예를 안았다.

입상학교와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단체성적
1위-상무국민학교



헤비급 태권왕이 된 김재승

2위 - 두암국민학교
3위 - 하남동국민학교
감투상 - 대자국민학교
장려상 - 염주국민학교
태권왕 - 김재승(상무국민학교)

▲ 각 체급별 우승자

편급: 유지호(계림국)
플라이급: 이우영(봉주국)
밴텀급: 김태현(대자국)
페더급: 한서용(중흥국)
라이트급: 최홍식(대성국)
라이트웰터급: 문병일(두암국)
웰터급: 서호성(무등국)
라이트미들급: 고권현(하남동국)
미들급: 김중진(두암국)
라이트헤비급: 김일구(봉주국)
헤비급: 김재승(상무국)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광주태권도 협회는 6월 6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승품, 단
심사 대회를 실시하였다.

전국체전 여자부 선발전 주부선수 이정임씨 출전

올해 전국 체육대회에 시범종
목으로 채택된 여자부 선발전에
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많은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으나
주부선수가 출전하여 못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올해 태권도 3단인 이 정임
선수(26세)는 결혼하기전 취미
살아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사업

그동안 각 체육관에서 수련한
750여명의 응심자중 협회는 빼
어난 기술과 기량을 자랑한 우
수자를 선발하여 품새부분 5명,
겨루기부분 5명에게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하였다.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대전직할시협회

태권도품새 및 심판 보수교 육 실시

대전직할시협회에서는 태권도
품새 및 심판 보수교육을 실시
하였다.

지난 4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실
시된 교육에는 일선 코치 및 도
장 사범들과 심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을 하는 남편 이재훈씨와 3년전
결혼하고 아들(만2세)을 출산한
후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
다.

한국체육관 본관(광장 김민철
-광주협회 총무이사)에서 매일
새벽 운동을 한다는 이 정임 선
수는 더욱 열심히 수련하여 앞
으로도 최대한 시합에 출전해서
광주 태권도 활성화에 한 몫을
다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경기도협회

6월 승품단 심사대회 1266 명 합격

경기도협회는 6월 6일 수원실
내체육관에서 승품단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126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627
명, 2품 260명, 3품 76명, 1단
133명, 2단 46명, 3단 38명, 4단
34명, 5단 7명 이다.

강원도 협회

5월 승품단 심사대회 1590 명 합격

강원도협회는 5월 12일 원주
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심사대회
를 실시하고 159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674
명, 2품 262명, 3품 62명, 1단
378명, 2단 103명, 3단 87명, 4
단 20명, 5단 4명이다.

충청북도협회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충북협회는 3월 28일 충북협
회 체육관에서 승품단심사대회
를 실시하고 99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은 1품 566명, 2

태권도 소식

품 201명, 3품 28명, 1단 139명, 2단 41명, 3단 19명이다.

충청남도협회

경기규칙 강습회 및 보수교육 실시

충남협회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천시민체육관에서 심판 및 일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경기규칙강습회 및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경기규칙강습회에는 1급 6명, 2급 25명, 3급 88명 등 총 119명이 수료하였으며 보수교육에는 32명이 수료하였다.

전라북도협회

2차 승품단 심사대회개최

전북협회는 93년도 제2차 승

품단 심사대회를 4월 25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총 115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 보면 1품 594명, 2품 231명, 3품 49명, 1단 134명, 2단 61명, 3단 44명, 4단 30명, 5단 7명이다.

제13회 교육감배 단체전 및 개인선수권대회 개최

전북협회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제13회 교육감배 태권도 단체전 및 개인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

부별 종합우승은 국교부-금평국교, 남중부-고창남중, 남고부-군상중앙고, 여중부-홍덕중, 여고부-김제북고가 차지했다.

개인별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선수는 다음과 같다.

▲국교부 : 유종철(군산남국) 강정우(금평국) 천세환(군산남국) 김성두(금광국) 전병철(함열국)



교육감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금평국민학교

이성철(이서국) 김기훈(금평국)
김지룡(금평국) 손정우(정읍남
국) 조기훈(전주남국) 김성철
(무장국)

▲중등부: 임두일(군산동중) 김
은성(전주중) 정재성(고창남중)
김종탁(군산중앙중) 황길재(고
창남중) 문경준(군산동중) 이병
희(옥구서중) 신성길(고창남중)
전문성(용안중) 김상민(옥구서
중) 이석찬(옥구서중)

▲고등부: 강윤영(영선종고) 박
명훈(군산중앙고) 정우성(군산
중앙고) 박홍철(군산중앙고) 육
근영(군산중앙고) 강대인(김제
북고) 기세복(기계공고) 김진민
(이리공고)

▲여중부: 윤전현(서흥중) 김현
주(흥덕중) 전정화(흥덕중) 김
수현(흥덕중) 이은주(군산여중)
김전(왕신중) 신선경(동남여중)
박선화(흥덕중) 고소혜(주산중)
고정자(흥덕중) 임선희(기전여
중)

▲여고부: 김보인 채영주 이은
정 정미화 양춘희 박정숙(이상
김제북고) 서수미 황정은(이상
고창여고)

전북 소년체전 개최

전북 소년체전이 5월 13일 전
북체육회 훈련장에서 개최되었
는데 체급별 우승자명단은 다음
과 같다.

▲국교부: 박성철(군산남국) 박
태석(남원국) 강정우(금평국)
서재규(군산남국) 전병철(함열
국) 박성철(이서국) 김기진(줄

포국) 손정우(정읍남성국) 이동
민(군산남국) 박정주(고창국)
임재훈(금평국)

▲중등부: 김대현(고창남중) 박
형준(금산중) 고영성(함열중)
정진철(고창남중) 황길재(고창
남중) 김원주(전주중) 김명수
(함열중) 이병희(옥구서중) 김
희중(보절중) 최순동(산내중)
김상민(옥구서중) 이석찬(옥구
서중)

제74회 전국체전 전북선발 전(2차전)개회

6월 4일 도체육회 훈련장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전북대표 2차
선발대회의 체급별 우승자 명단
은 다음과 같다.

▲핀급: 임태형(전북체고) ▲
플라이급: 김정연(영선종고) ▲
밴텀급: 이상민(전북체고) ▲페
더급: 박홍철(중앙고) ▲라이트
급: 육근영(중앙고) ▲웰터급:
김상우(영선종고) ▲미들급: 문
병국(중앙고) ▲김근호(전북체
고)

제2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북 최종 선발대회

4월 9일 전북체육회태권도 수
련장에서 개최된 제22회 전국소
년체육대회 전북대표최종선발대
회에서 체급별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다음과 같다.

▲핀급: 송성택(군산동중) ▲
플라이급: 김은성(전주중) ▲밴
텀급: 장문식(청웅중) ▲페더급

: 정재성(고창남중) ▲라이트급
: 황길재(고창남중) ▲라이트웰
터급: 김원주(전주중) ▲웰터급
: 김명수(함열중) ▲라이트미들
급: 이용구(감곡중) ▲미들급:
김남철(성진중) ▲라이트헤비
급: 김장수(전주남중) ▲헤비급
: 김태홍(삼우중)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품새 보수 교육 실시

전남협회에서는 3월 14일 전
남체육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전남 일원 관장 및 사범 150명
이 참가한 가운데 품새보수교육
을 실시하였다.

교육생 중 타의 모범이 된 6
명에게는 상장과 금뱃지를 수여
했다.

▲모범 수상자: 김형일(목포체), 이승순(도덕체), 임병영(서면체), 최석규(신라체), 이재춘(삼산체), 배정일(대회체)

제2회 KBS 광주방송총국 장기 대회 개최

본회는 KBS 광주방송총국장
기 태권도 대회를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남체육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실시하였다.

초등부 단체 5팀 개인 44명,
중등부 단체 4팀 개인 68명, 고
등부 단체 6팀 개인 43명 등 총
250명이 참가하여 우승의 고지

태권도 소식

를 향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각 부별 우승자를 보면 ▲초등부(11세급): 김남형, 정상훈, 이재현, 남윤해, 박진호, 김승일, 김준, 박중순, 유환, 양운찬, 이상규

종합우승: 여천서국민학교

▲중등부(11세급): 서지훈, 서현식, 허종근, 최선주, 정종천, 최경덕, 박정민, 허현, 이규림, 김현식, 김선철

종합우승: 이수중학교

▲고등부(8세급): 김재한, 마천국, 고재득, 김대성, 이승현, 마정진, 빙원철, 박성대

종합우승: 광양고등학교

춘계 종별 선수권 대회 개최

신인선수들의 기량을 측량하는 춘계 종별대회가 4월 17일 태권도 훈련장에서 개최되었다. 부별 우승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중등부:

한혜진(여천중), 김광남(유달중), 김홍식(보성중), 이홍석(유달중), 박철수(석교중), 하문성(석교중), 박철우(석교중), 장석진(담양중)

▲남자고등부:

강민국(효천고), 최명식(여수공고), 김외곤(순천공고), 이재용(여천고), 박승현(지명공고), 장정현(순천공고), 임태윤(덕인고) 한현우(여수공고)

▲여자부:

김지영(주성고), 조정혜(구례고), 김보영(맹호체), 김지선(정명여고), 문영(보성종합체), 정현옥(강남여고), 이미명(강남여고)

심판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1, 2, 3급 심판교육 및 보수교육이 개최되었다. 총 153명으로 1급 12명, 2급 19명, 3급 59명으로 심판교육인원은 90명, 보수교육은 63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전남 1차 예선대회 개최

전국체전 1차 예선대회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고등부 113명, 대학부 15명, 일반부 18명, 여자부 27명 등 총 173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각부 체급별 우승자를 보면 ▲고등부(8세급): 김도완, 마천국, 강정구, 김대성, 김은철, 마정진, 빙원철, 박준택. ▲대학부(8세급): 이대훈, 정준호, 조진호, 김현철, 양재훈, 장종오, 김성현, 박을용. ▲일반부(8세급): 유창호, 한지환, 장선택, 강재원, 김경일, 오원호, 최진수, 박은석. ▲여자부(8세급): 박미

복, 조정혜, 김보영, 김지선, 문영, 정현옥, 박영민, 이미영 등이다.

제10회 국민학교 태권왕 겨루기 대회 개최

자라나는 새싹들의 태권도 대회가 5월 1일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단체 6팀, 개인 66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대회의 종합 우승은 여수 미평국민학교, 2위 승주별당국민학교, 3위 여천중앙국민학교가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을 보면 최은인, 정상훈, 윤정영, 안상정, 남윤해, 김진우, 김준, 장진모, 임채실, 천충수, 양윤찬이 차지했다.

제32회 도민 체육대회 개최

3백만 도민화합의 무대인 제32회 도민체육대회가 목포시에서 성대히 그 막을 올려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15개 경기종목이 목포시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태권도는 목포상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르었는데 1위 목포시, 2위 광양군, 3위 영광군이 차지했다. 이번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종합우승은 목포시, 2위는 여수시, 3위 고창군이 안았다.

태권도 체급별 우승자를 보면 유창호(영광군), 한지환(영암군), 지환(순천시), 강재원(담양

군), 김경일(함평군), 장종오(영광군), 최진수(영광군), 박은석(동광양시)이 각각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전남협회에서는 3월과 5월중 심사를 응심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실시, 전남 태권도 훈련장 및 순천 팔마체육관, 목포 유당경기장에서 심사 대회를 개최하고 총 1,271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로 합격자를 보면 (3월 28일자) 1품 260명, 2품 101명, 3품 9명, 1단 178명, 2단 57명, 3단 32명, 4단 16명, 5단 4명

(5월 30일자) 1품 275명, 2품 95명, 3품 6명, 1단 114명, 2단 73명, 3단 33명, 4단 13명, 5단 5명이다.

〈전남 한현영 편집위원〉

경상북도협회

신인 선수권 대회 개최

93년도 남·여 신인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신인선수권대회가 4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대구실내체육관에서 남자 364명, 여자 26명 총 490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신인 선수들은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전분투 하였다.

제30회 학도체전 및 제5회 경북 소년체전 개최

경북 학도들의 힘겨루기 한마당 잔치인 학도체전 및 소년체전이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8개 시군이 출전한 가운데 경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종합성적은 우승: 의성군, 준우승: 포항시, 3위: 영천시가 차지했다.

신임 박운학회장 취임



경북태권도협회는 93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김기산회장 후임으로 박운학 (주)한양·화진주택건설 사장님을 제22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어 5월 3일 경북체육회관 2층강당에서 체육계 원로 및 내외귀빈 각시·군 연맹회장단 및 이사, 각 체육관 관장, (주)한양·화진주택건설 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취임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박운학 회장은 5단의 태권도인으로서 부인 김구분씨와의 슬하에 2남을 두었다.

태권도 소식

제31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경북 도민체전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점촌시에서 개최되었다.

태권도경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경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34개 시·군부가 출전한 가운데 경기가 치루어 졌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비로 체육관이 새는 등 악조건 가운데서도 집행부, 경기부, 심판부가 혼연일치가 되어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대회기간 중 점촌시 고병환회장, 신흥수전무이사를 비롯한 점촌시협회 이사들과 특히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장 정비를 해준 점촌시 관계 공무원, 문경여고 특점기록요원, 계시요원 등의 노고가 컸다.

이번 대회의 종합성적은 군부 1위 문경군, 2위 의성군, 3위 경주군, 시부 1위 점촌시·상주시 공동우승, 3위 김천시가 차지했다.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경상남도협회

제3회 협회장기 대회 개최

경남협회는 제3회 경남협회장기 대회를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함양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경남협회 이순달회장 등 태권도계 임원과 선수가족, 각팀의 응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방어진중학교, 경남체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제16회 종별 개인 선수권대회 개최

경남협회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남해 군민회관에서 제16회 경남 종별 개인선수권대회(중, 고, 일반, 여자부)를 개최하였다.

제주도협회

신임회장에 양세훈씨 취임

제주도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양세훈(53세) 동성개발(주)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 3, 이사 21, 감사 2명 등 총 27명의 집행부 임원을 구성했다.

(임원명단)

- ▲ 회장: 양세훈
- ▲ 부회장: 신상은, 문기호, 김창기
- ▲ 전무이사: 조동석
- ▲ 총무이사: 윤상택
- ▲ 경기이사: 오선홍
- ▲ 심판이사: 허종순
- ▲ 기획이사: 양동언
- ▲ 홍보이사: 최학기
- ▲ 훈련이사: 김동훈
- ▲ 시설이사: 최철영

태권도 고단자회 회장 이취임식 - 신임회장에게 조희삼 경남협회 부회장

경남 고단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남의 태권도 원로 및 관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2대회장 이병길씨(8단)에 이어 3대회장으로 취임한 조희삼씨는 취임사를 통해 우선 회원 화합 및 친목도모를 위해서 부부 동반 하계수련회 및 친선 체육대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회원 전체가 경남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자고 당부했다.

조희삼회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대표선수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단자회의 회원 모두 무도 태권도인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태권도 고단자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 무도 태권도 발전의 기틀이 되자고 다짐했다.

조희삼회장은 현재 경남협회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그동안 협회에서 실무행정 분야의 임원으로 활동하여 왔기 때문에 회원들은 신임 조희삼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 축하 행사에는 경남체육회 이도재 선수강화위원장이 참석해 전임 이병길 회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조희삼 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경남협회의 이순달회장

은 축하화환을 보내 고단자회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해 주었고 조희삼회장의 제자대표로 구무진씨(벽산주식회사 이사)가 조희삼장에게 꽃다발을 목에 걸어주었다.

이취임식에 이어 거행된 축하연회에서는 경남의 최고원로 이신 김태윤선생이 경남 고단자회의 발전을 기리는 건배를 제의 "우리가 남이가"를 선창하는 가운데 건배를 들며 태권도 고단자간의 친목을 다졌다.

▲ 이사:

고병림, 박정일, 하창덕, 김익수, 허종범, 김권태, 김창환, 오상현, 강민호, 김성진, 강창하, 한도실, 고한진

▲ 감사: 김수진, 안영익

제28회 전도태권도대회 개최

제주도협회는 4월 22일과 23일 이틀간 한라체육관에서 제28회 전도태권도대회 (도지사기, 교육감기, 교육대학장기)를 개최하였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대학부포함), 여자부(중등부, 일반부) 경기로 치루어진 이번 대회에서

▲초등부 우승은 서귀중앙국민학교: 교육대학장기 및 우승컵, ▲중등부 우승은 서귀중학교:

태권도 소식



교육에 앞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김봉식 연수원 부원장

교육감기 및 우승컵, ▲고등부 우승은 남주고: 교육감기 및 우승컵, ▲일반부 우승은 쌍용체육관:도지사기 및 우승컵을 차지했다.

여자부는 개인별 시상으로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국기원

제17기 태권도 2급 경기지도자 연수과정 실시

국기원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2급 경기지도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하여 태권도 발전은 물론 한 국체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총 150명이 수강한 가운데 12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제75기 태권도사범 및 3급

사회체육지도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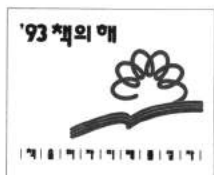
태권도 4단 이상자를 대상으로 사범 및 사회체육지도자 교육이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에서 총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한편 74기 사범지도자 교육(3. 18~31) 수료생 151명 중 사범자격증을 획득한 합격자는 147명이다.(합격자 명단은 행사 기록에 게재)

제10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체고대회, 대전체고우승

문화체육부가 주최한 제10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체고체육대회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태권도를 포함한 10개 종목경기가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10개 체육고등학교 재학생이 출전, 학교의 명예를 건 열전 끝에 대전체고가 태권도 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좋은 책을 읽고 친구에게도 소개하자”

최영재 지음 『내가 좋은 친구면
모두가 좋은 친구』
『그저 남보다 조금만 더』

송 재 찬 / 동화작가. 서울한신국민학교 교사

최영재 선생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린 동무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써내는 동화 작가입니다. 그의 글들을 읽으면 이 세상 동무들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깐 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감동까지도 줍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길’ ‘나를 생각하며’ ‘친구를 생각하며’ 두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대개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의 큰 제목들이 나옵니다. 마치 도덕 교과서의 글 제목 같습니다. 그러나 속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안그렇습니다. 웃음이 터지는 이야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절금거리는 이야기,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하는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한 번씩, 아니 여러번 이라도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이지만 너무 재미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의 코메디 프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아, 알았다. 웃기는 책이구나.”

“맞아, 웃기는 책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오해의 말을 해선 안됩니다. 웃음꽃이 터지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솟아나는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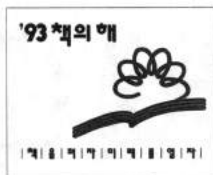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어린 동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런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권의 책을 읽으면 자기 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 동무들인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요? 얼굴 때문에, 키 때문에, 공부 때문에... 그래서 하루 하루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동무들도 이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만큼 좋은 책입니다. 꼭 읽고 친구에게도 소개하세요.

좋은 책을 혼자 읽는 것은 정말 욕심장이입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책읽기를 싫어하는 내 어린 동무 호기도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들입니다. **이태수**



이성과 감성의 조화

—헤르만 헤세의 『지성과 사랑』—

〈잃어버린 고운 노래의 고요한 멜로디〉와도 같이 저 하늘을 가는 흰구름을 〈고향 잃은 나그네의 누이이며 천사〉라고 노래한 헤르만 헤세의 시적 감수성은 참으로 여리고 섬세하다. 그러나 이 감성적 반응이 즉흥적이고 밑동이 약한 심정적 차원에 머물렀다면, 동북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1993년의 여름을 맞고 있는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몰랐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정신의 흐름인 〈감성〉과 논리적인 사고 형태인 〈이성〉을 함께 붙들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양의 신 아폴론과 술과 도취의 신 디오니소스를 병치시키고 있고, 채근담의 글귀에서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삶의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를 가르친다.

헤세가 쓴 장편소설 『지성과 사랑』은 바로 이 두가지 품성이 어떠한 상호관련성과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어린 시절 운명적 만남을 가진 골드문트와 나르찌스가 한 사람은 방랑자로 또 한 사람은 사제로 주어진 행로를 걸어가면서 마지막 대목에서 다시금 운명적 만남을 이루기까지, 그들의 이름으로 준비된 백지위에 어떤 채색을 남겨놓았는가를 이 소설은 추적한다.

나르찌스의 삶은 신념과 확신에 찬 그리고 절대자를 향한 동력선을 이그러뜨리는 법이 없는 교과서적인 것이다. 반면에 골드문트는 정해진 격식과 경로의 온당함 및 단일함을 거부하고 분방한 상상력과 본연의 욕구에 따라 자의적인 삶을 꾸려간

김 중 회 / 문학평론가, 경희대 강사,
경희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
문학박사. 저서 「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 「문학의 이해」
평론집 「현실과 문학의 상상력」

어린 시절 운명적

만남을 가진 골드문트와 나르찌스가

한 사람은 방랑자로 또 한 사람은 사제로 주어진
행로를 걸어가면서 마지막 대목에서 다시금 운명적 만남을
이루기까지, 그들의 이름으로 준비된 백지위에 어떤
채색을 남겨놓았는가를 이 소설은 추적한다.

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삶의 방식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무리하게 일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두가지의 캐릭터가 인간이 가진 내면적인 모습의 분화된 형태라고 한다면, 나르찌스가 없는 골드문트나 반대로 골드문트가 없는 나르찌스는 한 인격의 완성된 개체라는 형태로 표현되기 어렵다. 말하자면 이들은 한 인격 내면의 변별적인 두 성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대립적인 성격이 부딪치는 표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기실 필자를 『지성과 사랑』으로 인도해 준 길잡이는 헤세의 『데미안』이란 소설이었다. 헤세의 당대에 새롭게 확립된 독일시민사회 주축의 문화전통이 교양소설 또는 성장소설이라는 장르를 확립하였을 때, 그의 작품들은 여기에 선도적 그룹의 상위수준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의 독일의 문화에 대해, 저 유명한 헝가리 태생의 문예이론가 게오르크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에서 서사형식의 진보에 있어 대단히 유의미한 단계를 형성했다고 평가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스러져 간 독일 병사들의 배낭 속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었다는 『데미안』의 강력한 흡인력은, 그것이 소설로 쓰여진 비길데 없이 우수한 전인교육의 텍스트라는 평가로 설명될 수 있다.

『데미안』이 치기어린 문학청년 시절의 필자에게 던져준 충격은, 헤세의 다른 작품들을 탐독하게 하고 그의 시를 암송하게 하고 종래 문학과 더불어 일생을 살도록 필자를 인도하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허황할 만큼 꿈광던 젊

은 날에 무어 그리 깊이있게 문학과 인생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었으리마는, 참된 삶의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깊이있는 바닥을 두드려 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필자의 심상에 『데미안』이, 그리고 『지성과 사랑』이 새겨놓은 각인은 지금도 가슴이 시리도록 생생하다.

스스로의 삶을 온전하고 품위있는 것으로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애잔한 서정과 굳센 의지를 함께 지니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성과 사랑』이 예인동대의 불빛처럼 인도의 길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감성과 이성의 혼재를 직시하면서 그 가닥을 슬기롭게 간수할 수 있을 때, 우리 내부에 있는 불같이 뜨거운 격정이나 칼날같이 날카로운 냉담도 우리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측면의 굴레를 둘러쓰는 일로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다. 수용자에 따라서 『지성과 사랑』은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회색빛 도시문화의 와중에서, 사각형으로 구획지어진 우물한 삶의 공간을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은 감성을 회복하도록 해주는 계기는 흔하지 않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 석양에 물든 저녁놀을 바라보며 옛 꿈을 생각하거나 이름모를 풀꽃에서 우주를 보는 심성의 풍요로움, 자유로움을 잃어버렸다.

골드문트가 소설의 결미에서 <어머니가 없이는 사랑할 수도 죽을 수도 없다>고 일러주는 레토릭은, 거칠고 날카로워진 우리의 이성애 부드러운 감성의 유약을 덧입히도록 촉구하는 충고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리라. **EN2**

컴퓨터에는 286AT, 386, 486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

글: 박 성 욱 (대한태권도협회)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눈다는데 이 정도는 옆집 국교생도 다 아는 사실. 이것도 모르는 뒷집아저씨는 '컴맹'이라고 놀림 받아도 할 수 없는 일.

"대체 이게 뭘소리여, 학교다닐 때 푹푹하던 소리도 들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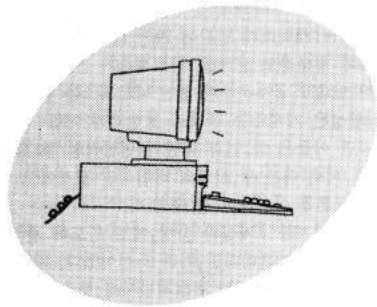
일전에 철수네 집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 했다고 가 보았더니 386 이라나 뭐래나 순이네 집에 가 보았더니 486 이라는 기종을 구입했다고 자랑 자랑 또 자랑, 온 동네가 컴퓨터 유행 병에 걸렸나? 그런데 486이 386 보다 숫자가 높으니까 386 보다는 좋은줄 알겠는데 386, 486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들일까?

하드웨어에 보면 CPU 라는 것이 있다. CPU 라는 것은 컴퓨터 장치 중의 하나인데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머리 정도로 비유될 것이다.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푹푹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CPU가 좋아야 훌륭한 컴퓨터로서 사람의 일을 빠른 시간에 적적 해낼 수 있는 것이다.

CPU는 다른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라고도 하는데 컴퓨터의 껍데기를 살짝 벗겨보면 여러개의 칩들을 볼 수가 있다.

와! 요런것들이 어떻게 숫자를 계산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도 연주할까?

가운데를 자세히 보면 8088, 80286, 80386 등의 숫자가 적혀 있다. 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컴퓨터의 처리 속도와 성능 등이



결정되고 몇 비트(컴퓨터에서 정보를 나타내는 단위: 쇠고기 500 그램 하듯이)나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숫자가 8088 이면 XT, 80286 이면 286 AT, 80386 이면 386 컴퓨터 라고 부른다.

야! 그러니까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XT, 286AT, 386, 486 이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16비트는 뭐고 32비트는 뭐지? 옛날 그리 오래 되지 않는 옛날 미국의 컴퓨터 회사인 애플사에서 8비트 용을 개발 본격적인 PC 시대를 열었다지. 그전만해도 컴퓨터는 말 그대로 진짜 전문가 만이 사용하는 전용물이라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컴퓨터를 구경도 못했을 꺼야. 컴퓨터가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

486DX로 오락만 한다면 200만원짜리 오락기계일뿐. 286AT컴퓨터로 회계분석을 한다면 훌륭한 회계분석가가 될 수 있다.

8비트 컴퓨터는 자료를 주고 받는 경로를 8비트씩, 16비트는 16비트씩, 32비트는 32비트씩 주고 받는다 하여 32비트 386 컴퓨터 라고들 한다. 그러니까 16비트 컴퓨터 보다는 32비트 컴퓨터가 처리 속도가 빠른건 당연하다.

‘요즈음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이 무척 복잡한데 가까운 거리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어떨런지’

그런데 가만 보아하니 같은 엑셀이라도 GL 이니 GLSI 니 뭐니 해서 요것에 따라 값이 틀린다는데 32비트 386컴퓨터라고 해서 다같은 386컴퓨터나 천만의 말씀. 386도 사용하는 CPU에 따라 386SX, 386DX 로 나눌 수 있다. 386SX는 32비트 컴퓨터 이면서도 자료는 16비트씩 주고 받는다. 32비트 기능을 하면서도 처리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

386DX는 386 컴퓨터중 최고로 좋다고 할 수 있는데 SX 보다는 처리속도가 빠르고 각종 옵션도 장치할 수 있다. 물론 SX는 싸고 DX는 비싸다.

486SX, DX 컴퓨터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길. 곧 있으면 586, 686, 786 성능의 컴퓨터가 나온다는데 기대하시라.

이제 어느정도 컴퓨터의 이름에 대해 감이 잡혔으리라 본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릴것이 있다면 486DX 컴퓨터를 200만원에 샀다고 자랑만 하지말고 486DX급 컴퓨터를 어떻게 성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야 한다. 486DX로 오락만 한다면 200만원짜리 오락 기계

일뿐. 그 돈으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면 평생을 하고도 조금 밖에 모자라지 않으리라. 286AT 컴퓨터로 회계분석을 한다면 훌륭한 회계 분석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주위의 소프트웨어 상가에 가서 열심히 보고 컴퓨터 관련 서적을 열심히 뒤적 거리고 해서 고칠당어리 컴퓨터의 진가를 확인하자는 말씀. 그리고 자신의 일에 알맞는 컴퓨터를 구입하자.

도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386SX급 정도 구입하면 적당(쓰고도 남음)하리라 본다. 그러면 수련생 관리, 문서 작성, 컴퓨터 통신, 재미있는 오락 등도 척척 해낼 수 있으리라.

컴퓨터는 어떤 주인이 쓰느냐에 따라서 AT컴퓨터가 천재로, 486DX 컴퓨터가 바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보시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이름과 뜻 정도는 알것이다.

그럼 다음에 또!!

대선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

- 올바른 PC구입 요령
- PC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 컴퓨터관리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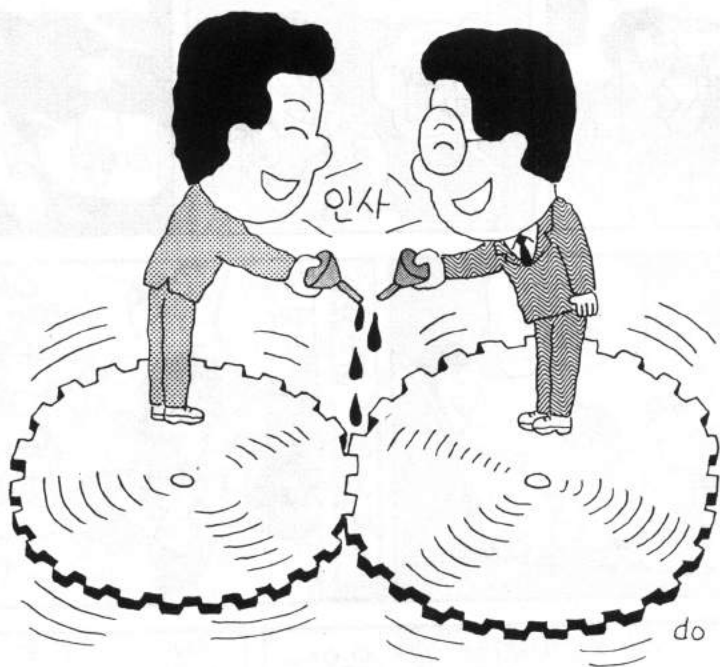
태권가족



이 향원







예시에종(禮始禮終)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무도이다.

예(禮)로서 시작하고 예로 끝나는 태권도.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씀으로써 예절을 지키자는 취지로 이번 호부터 언어생활규범을 제시하기로 했다.

게재된 원고는 조선일보사 출판국에서 발행한 『우리말의 예절』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인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고리이고 윤회
유라 할 수 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주고 받는
밝은 인사 한 마디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준다. 대체로 외국인들은
낮선 사람끼리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간단하고 밝
은 인사를 주고 받는다. 우리도 마주치는 사람끼
라 밝은 표정으로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을 출입할 때의 인사

매일 얼굴을 대하는 식구끼리도 서로 밝게 인사
하는 것은 필요하다. 집에서 누가 나가는지 들어
오든지도 모르게 출입할 때 인사를 하지 않는 사
람들이 많다. 그러나 예전에는 출입할 때 어른들
께 꼭 인사를 여쭙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다.

집을 나서면서 "(학교, 회사)다녀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이 인사를
받아 "잘 다녀 오나라"하고 인사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따라 경어상의 등급
은 달라질 수 있어서 나가는 사람이 "다녀 오리
다", "다녀 오겠소", "다녀 오마", "다녀 올께"하
며 인사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안녕히 다녀오십
시오"하고 인사하며 배웅한다.

외출했다가 들어 올 때에는 "다녀 왔습니다"하
고 인사하는 것이 정형이다. 이 밖에도 상황에 따
라 "늦었습니다", "별일 없었니?" 등을 쓸 수도
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마중할 때는
"다녀 오셨습니까?"하고 인사를 한다.

거리에서 이웃 사람을 만났을 때

거리에서 이웃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안녕하
십니까?"하거나 "어디 가십니까?"하고 인사한다.
마을 어귀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만났
을 때는 "어디 다녀 오십니까?"하고 인사한다.

"어디 가십니까?"하고 인사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 말은
상대방이 어디를 가는지 그 목적지를 묻는 말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말이다.

직장에서의 인사

아침 인사가 아니어도 직장에서 그 날 처음 만
나게 되는 경우의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이다.
그 날 이미 한 번 인사를 했는데 또 마주친 경우
에는 따로 인사말이 필요하지 않고 목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직장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이웃 사람에
게 하듯이 "어디 가십니까?"하고 인사를 하는 것
은 공적인 일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어
울리지 않는다.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랫사람에게 먼저 인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의 인사도 "안녕하세요?"하
거나 "잘 있었나?" 정도가 좋다. 이 밖에도 상대
방의 상황에 따라 관심을 나타내는 인사를 할 수
도 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는 "먼저 (나)가겠습니
다" 또는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아
주 윗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란 말을 얹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나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란 말을 쓰는 것이 온당할 것이
다.

"수고하십시오"는 윗사람에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러나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는
"먼저 가네, 수고하게"처럼 '수고'를 쓸 수도 있
다.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은 퇴근하는 사람에
게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인사한다. 이 때도 윗사
람에게는 역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랫사람에게는 "잘 가계, 수고했네"와 같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

집 에 서	나가는 사람이	다녀 오겠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안녕히 다녀 오십시오.
	들어오는 사람이	다녀 왔습니다.
	마중하는 사람이	다녀 오셨습니까?
	오래만에 만나는 어른에게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다까?
	오래 헤어져 있을 사람에게	안녕히 다녀 오십시오.
	거리에서 이웃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 다녀 오십니까?
직 장 에 서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나가는 사람이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이	안녕히 가십시오.
식사 시간 전후에 만났을 때		(점심) 잠수했습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버스, 승강기 지하철 등 탈것에서	탈 때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리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다.
	내리는 사람에게	안녕히 가십시오.

이 인사를 한다.

버스나 승강기와 같은 탈것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친 때에도 역시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내리겠습니다”또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하고 인사를 한다. 먼저 내리는 사람에게는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인사하는 것이 좋다.

점심(저녁) 시간 무렵에 윗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점심(저녁) 잠수했습니다?”가 좋다. “점심 드셨습니까?”할 수도 있는데 “점심 잠수했습니다?”하는 것이 더 정중한 표현이다. “식사하셨습니다?”와 같은 말은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에게는 쓸



수 있어도 어른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래 만에 만난 어른에게

오래만에 만나게 된 어른에게는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다?”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중한 인사이고, “그동안 별로 없으셨습니까?”도 쓸 수 있다. ‘무고’나 ‘별고’는 윗사람에게 쓸 수 없다고 하여 “그 동안 별로 없으셨습니까?”는 못 쓴다는 의견도 있으나 깍듯이 모실 윗사람이 아니면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평안히 계셨습니까?”는 ‘평안히’ 때문에 윗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다. 평고간이나 아랫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또는 “오래간만입니다”, “그 동안 별로 없었는가?”, “반갑습니다”와 같은 인사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사람에게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나 해외로 나가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사람을 보낼 때는 “안녕히 다녀 오십시오”하고, 아랫사람을 보낼 때는 “잘 다녀 오나라”라고 인사한다. 물론 이러한 말 끝에 “몸 조심 하여라”와 같은 말을 덧붙일 수 있다. 떠나는 사람은 “다녀 오겠습니다”또는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한다. F4204

물과 人生

글·李 淑



李 淑 / 고대 국문과 졸업, 국제펜클럽회원, 전국 문인협회이사, 한국수필가 협회 이사, 인천여류문학회장. 저서: 유정, 내영혼의 무지개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한다.

물은 담기는 그릇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그 맛이나 빛깔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서 물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감명과 교훈을 지니고 있다.

조물주는 우주공간에 활력소를 충만시켜 물질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다음에 물질세계에 물을 유통시킴으로써 세계는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된 것

이다. 원래 생명의 한 점은 물의 유통에서 생긴 것이다.

물의 움직임, 물의 흐름, 물의 순환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 세계는 조화를 보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곧 우리의 생명은 물같은 마음. 흐르는 물같이 순리에 따르면서 보다 나아지며 그것에 거역하면 망하고 마는 것이다.

흐르는 물의 모양은 솔직하다.

조용히 흐르는 물은 강의 모양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 항상 같은 모양에 따라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이 흐르는 모양이야말로 진심의 모습이다.

사람은 항상 진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어주는 진심. 그것도 날로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 흐르는 물은 언제나 깨끗하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물은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청탁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수용하여 흐르고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만 골라서 흐르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써 무수한 생명을 번성시키는 것이리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위가 있으니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위에서 받는 은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요즈음 사회 저명인사들의

비리가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어이없기도 하지만 장마 뒤에 흐린 물이 쓸려가고 나면 맑은 물이 흐르듯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물의 흐름은 멈출 줄 모른다. 위에서 아래로 꾸준히 흘러간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자연에 거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연에 거역하는 것은 자기의 운명을 그르치는 것이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리라. 부정부패가 생기는 원인도 순리에 따르지 않고 자연을 거역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모든 것은 한방울의 물로 시작하여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며 바다를 이룬다. 한방울의 물은 인간 개개인이고 냇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 구성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사회가 모여 한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여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로의 입장을 지키고 개성을 존중하며 남을 사랑하여 감사하는 마음, 남을 포용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 인생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는 밝아지고 풍요로와 질 것이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물의 모습을 스스로의 행동규범으로 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에 반드시 소원이 성취된다.

물은 수수께끼 같은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끌어헤쳐며 흐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 호 심/대한태권도협회 여성분과부위원장

태권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몰라도 내게 있어서 분명 태권도는 사랑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는 내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태권도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왔다.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수련하여 주위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어린 소녀가 어느새 성장해 사범이 되어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했으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 된 오늘날 나는 태권도복을 입고 어린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나는 어릴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공차기며 달리기며 앞장서서 하곤 하였다.

내가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 것은 요즘 아이들처럼 태권도장에 입관해서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한 기회 때문이었다.

국민학교에 다닐 때 큰 오빠가 월남전쟁에 파병되었다가 제대를 하여 전남 영광인 고향으로 돌아왔다. 오빠는 베트남에서 태권도의 명성이 얼마나

나의 인생, 나의 태권도

높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것을 흥미있게 들었었다. 오빠는 심신수련을 위해서, 호신을 위해서 태권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마을 청년들을 모아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월남전에서의 태권도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은데다가 운동에는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빠들 틈에 끼어 태권도를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동네 오빠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했는데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웠을 때는 나를 우습게 보았던 오빠들이 나의 다부진 품새며 거루기 솜씨에 놀라 여자 태권도 일인자가 되어보라는 말을 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한 나는 1975년도에 초단에 응심, 당당히 합격함으로써 태권도의 길을 걷기에 이르른 것이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태권도를 한다는 것이 내놓고 자랑할 것이 못되거니와 오히려 여자가 태권도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태권도 승단시험을 보는 것도 상당히 모험을 한 것이다.

검은띠를 매게된 나의 기쁨은 너무도 컸다. 이



도장수련생들과 함께 필리핀 초청시범을 마치고

세상 무엇을 해도 자신이 있을 것 같았으며 인생의 목표를 태권도 지도자로 꿈꾸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살고 있던 나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먼저 올라와 자리를 잡고있던 언니 오빠와 함께 자취를 시작한 나는 우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체육관으로 가서 등록을 했다. 나는 김봉규 사범님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했다.

사범님께서는 나의 수련모습을 지켜봐 주시면서 태권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셨다.

서울에서의 태권도 수련으로 나는 신이나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취를 했기 때문에 생활비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공부하는 동생들의 학비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2단 승단후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체육관에서 수련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보수가 적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태권도 지도자로 가는 길목에 서있었던 나로서는 보수에 연연할 수 없었다.

나는 4단으로 승단했고 드디어 지도자교육을

수료하고 사범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때의 그 기쁨은 너무나 가슴 벅찬 것이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나의 체육관을 마련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싶은 희망으로 가득찼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그 꿈은 당분간 접어들어야 했다. 나는 그후 6년간 체육관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지도자생활을 계속한 후 1987년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내 도장 간판을 걸 수 있었다.

내 모든 실력을 다해서 태권도를 지도하리라는 각오로 초창기 관원을 모집했는데 20여명이 등록을 했다. 그후 약 1년간을 매달 40여명의 관원이 수련했다.

여성 관장이라고 잘 가르칠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호감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은 100여명이 넘는 관원이 태권도 수련으로 심신을 닦고 있다.

오늘도 나는 도복을 입고 수련생들을 지도하면서 수련생들에게 예의바른 태권도인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련생들에게 자신있게, 바르게 이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장에서서의 교육프로그램 (I)

목 차

- 글을 준비하며
- ❶ 체육관현황 및 우리의 모습
- ❷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
- ❸ 프로그램작성 및 유의사항
- ❹ 글을 마치며



이 종 천 /

-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졸업
- 태권도 프로그램 연구회 회원
- 경기도 여수 오학체육관 관장

I. 글을 준비하며

그동안 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수련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생각하고 정리하던 부분들을 이렇게 태권도인 모두가 애독하는 태권도 계간지에 글을 쓰게되어 태권도 지도자로서 영광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그것은 이 글을 대하게 될 독자 자신들이 나름대로 체계화된 신념과 방식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는 태권도 지도자라는 점과 우리 모두가 강하고 뚜렷한 개성을 지녔다는 점 때문이다.

이 두 부분이 나에겐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위안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진정 걱정하는 부분은 태권도라는 무도로서의 가치의 중대함이다.

혹 나의 글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교육방법의 부분적 가치를 떨어 뜨리거나 태권도라는 고전적 가치를 너무 현실이라는 도마위에 올려놓는 것은 아닐까. 혹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절묘한 가치의 부분들,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문제라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연재를 결심하게 된 것은 도복을 입은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며 태권도가 지닌 가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 지도자의 사명은 그 만큼 분명해지

태권도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수련생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키울 것이며, 그러한 인간상을 형성하도록 하기위해 어떠한 교육내용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 문제는 태권도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태권도 교육 내용 작성에 대한 보다 타당한 답을 찾기 위해 태권도장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하는 이종천사범의 「프로그램論」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기 때문이다.

혹 나의 글이 독자 여러분들의 태권도에 대한 지도 경험과 태권도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에 있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큰 공통점으로 널리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글을 시작할까 한다.

이제 여러분을 가벼운 차림으로 태권도라는 점과 부페 음식점에 초대 할까 한다.

여러분 앞에 놓여질 음식과 그 음식들의 조리 방법을 보시고 독자의 입맛에 맞고 마음에 드는 음식이나 음식조리법이 있다면 집에 가져가서 독자 여러분 가정의 전통과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될 것이다. 음식을 준비하는 저의 바램은 저희 음식점의 음식이 손님의 입에 맞고 각 가정의 전통과 풍습에도 맞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저의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거나 조리방법이 있는 독자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으며 우리의 태권도가 더욱 발전 하리라 믿는 바이다.

II. 체육관 현황 및 우리의 모습

1. 전국의 체육관 현황

체육청소년부(현 문화 체육부) 9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태권도 체육관은 총 3,523개에 이르며 그중 서울특별시가 821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경기도로 556개, 부산 직할시가 397개, 경상남도가 314개 순으로 조사 되었다.

경기도를 예를 들어 태권도장의 규모나 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으나 조사 당시 경기도의 체육관 수는 556개로 체육관의 총 면적은 61,842m²이며 이중 체육관 바닥면적 즉 운동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48,848m²이다.

또한 전체 체육관 수 중 본인의 건물인 경우는 27개에 불과 했으며 나머지 523개 체육관은 전세 또는 월세의 큰 임대 부담을 안고 경영되고 있다.

이 임대 부담은 대도시일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지며 규모 또한 더욱 협소해 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열악한 기초 환경 속에서도 우리 태권도 체육관은 경영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전인 교육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경영적 측면의 구조가 튼튼해질때 교육의 질도 향상 될 것이며 그 구조의 해결책은 결국 수련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열심히 성심껏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잘 가르치는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수련생과 조기퇴관 실태의 극복

이 부분을 논하기전에 먼저 독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수련생 분포를 논함에 있어 보다 광범위하게 자료를 충

태권도 체육관은

경영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전인교육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경영적 측면의 구조가 튼튼해질때

교육의 질도 향상 될 것이며

그 구조의 해결책은 결국 수련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분히 조사하여 정확한 결과를 준비해야 함에도 일부 표본지역의 소수 체육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쓰게 되어 이 부분의 신뢰도나 타당성이 좀 부족하리라 본다. 그러나 일선체육관의 방문 경험이나 프로그램 연구회 회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현실과 경험을 토대로 적어 보겠다.

수련생의 분포는 지역과 주변환경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현재 태권도 체육관의 수련생 분포는 국민학생이 전체 수련생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순이 될 것이다.

물론 유치부가 더 많은 체육관도, 중·고등부 수련생이 더 많은 체육관도 있겠으나 그것은 일부의 현상에 불과 하리라 생각된다.

수련생들은 보통 4~6개월 정도에 권태기를 느끼며 이 시기에 많은 수련생이 수련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부분은 좀더 깊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학업 때문에 힘들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심지어는 다 배운것 같다 등이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문제와 환경의 한계성이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태권도 체육관은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한다. 그 방안은 역시 지도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며 그 가르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다양해야 할 것이다.

수련을 다양하게 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

한다면 적어도 수련생 퇴관 이유중 절반 이상은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교육의 준비와 계획은 우리 지도자 자신의 권태와 나태를 극복 할 수 있으며 교육 계획이 있어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 준비가 되 있어야 가르치는 사람도 흥이 나며 가르침에 자신이 생기는 것이라 믿는다.

3. 주변 교육과 우리 교육의 방향

일선 체육관은 일반 다른 학원들과 과외수업 등의 상대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 밖에도 많은 경쟁 대상들이 있다.

그 경쟁 대상과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의 장점과 나아갈 교육의 방향을 간단히 제시해 보겠다.

현재 우리 태권도와 가장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학습 기관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운동은 공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건강과 예절, 자녀의 행동에 관해 많은 염려의 부분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학습 기능향상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도시가 더욱 심하겠지만- 타 교육 기관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타 교육기관의 장점은 학습향상이라는 부분이 즉시 학부모의 눈에 보여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을 속셈학원이나 과외지도

체육관에 한 자녀를
입관 시켰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을
얼마나 지속 시키며 수련생의
배움의 욕구를 태권도를 통해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가.

를 시켰다고 하자. 그러면 이 학생은 별 문제가 없는 한 노력여하에 따라 학업 성적은 분명 향상된 모습으로 부모의 눈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 결과는 곧 그 부모 자신의 판단에 스스로 확신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

체육관에 한 자녀를 입관 시켰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을 얼마나 지속 시키며 수련생의 배움의 욕구를 태권도를 통해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 태권도 체육관의 숙제가 아닐까? -이 부분이 내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문제임에도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혹 염려하는 바와 같이 태권도라는 것을 평가 절하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나는 지금 태권도를 통해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글을 계속할까 한다-

우리는 어떠한 발전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첫째가 우리 태권도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행동 예절의 변화가 아닌가.

체육관 마다 교육적 차이는 있었으나 체육관 입관시 제일의 변화된 모습이 예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변화의 기간은 상당히 짧으며 효과도 빠

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을 입관 시킨 부모가 아이가 운동 끝나고 돌아오는 첫날에 “어머니 아버지 체육관 다녀왔습니다”라고 정중히 인사를 하거나 체육관을 다니고 부터는 부모님 앞에서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는 다든지, 부모님이 오시거나 옷이론이 오시면 절도있게 정중히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변화를 보인다면, 비록 작은부분 이지만 우리는 흔한 표현으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1차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다음은 발전적 변화의 연속성 지속성이 필요하다.

나는 이 2차적 변화에 더 큰 우리의 경쟁력과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2차적 교육은 첫째,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것.

이 짧은 두 줄의 표현이 우리가 갖는, 태권도가 갖는 현대적 제일의 장점이며 잠재력이 아닌가. 결국 학습 기능의 향상도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이러한 여러 부분의 교육적 가치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가능하며 그것(교육을 통해 참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전인교육)이 우리가 갖는 최대의 장점이며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호 부터 “태권도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작성법” 그리고 일선 체육관 관리 및 운동시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태권**

학위 논문 소개

최근 태권도 관련 학위논문이 다량 발표 되고 있다. 이는 그간 종주국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태권도학의 이론적 정립 측면에서 실로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태권도誌는 이번호 부터 최근 출간된 학위논문을 간략하게 소개 - 연구목적, 연구 내용, 결론부분 - 키로 하고 '92년 근착논문부터 게재한다. 지면관계상 전문을 실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나, 지도자 및 수련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불어 태권도지에 게재되지 않은 '92년 이후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을 협회로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

〈편집자 註〉

목 차(발표순)

- 여자 태권도경기의 공격내용 분석(92. 2)
 - 이인재(인하대 교육대학원)
- 태권도를 수련하는 유아들의 행동발달에 관한 연구(92. 6)
 - 강선장(한양대 교육대학원)
- 태권도경기에 있어서 각 기술동작에 따른 사용빈도수와 득점에 관한 조사연구(92. 12)
 - 한상진(명지대 대학원)
- 태권도 경기중 선제공격과 역습공격의 득점력에 관한 분석적 연구(92. 12)
 - 이재봉(동국대 교육대학원)

여자 태권도경기의 공격내용 분석

이인재

1.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태권도 경기에서 10가

지 공격형태 간, 승패자간, 체급 간, 라운드 간, 자세 간에 공격 시도수와 득점수 및 성공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공격형태 간의 공격 시도수와 득점수 및 성공률의 비교.
- 2) 승·패자 간에 공격 형태별 시도수와 득점수 및 성공률의 비교.
- 3) 체급 간에 공격 형태별 시도수와 득점수 및 성공률의 비교.
- 4) 라운드 간에 공격 형태별 시도수와 득점수 및 성공률의 비교.
- 5) 자세 간에 공격 형태별 시도수와 득점수 및 성공률의 비교.
- 6) 공격형태별 득점형태의 비교.

2. 연구 내용

1) 측정 항목

- (1) 앞 돌려 차기 (오른자세, 왼자세)

- (2) 들어 찌기 (오른자세, 원자세)
- (3) 앞 후리기 (오른자세, 원자세)
- (4) 뒤 후리기 (오른자세, 원자세)
- (5) 뒷차기 (오른자세, 원자세)
- (6) 옆차기 (오른자세, 원자세)
- (7) 빠른발차기 (오른자세, 원자세)
- (8) 뛰어들어찌기 (오른자세, 원자세)
- (9) 턴 앞돌려차기 (오른자세, 원자세)
- (10) 주먹 공격 (오른자세, 원자세)

2) 측정 내용

(1) 빈도수 : 승패별, 체급별, 자세별, 라운드별, 득점유형별 공격 형태의 공격 시도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2) 득점수 : 승패별, 체급별, 자세별, 라운드별, 득점유형별 공격 형태별의 득점수를 기록하였다.

(3) 성공률 : (득점수 / 시도 빈도수) $\times$ 100으로 산출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여자태권도 경기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90년 국가대표선발 2차전과 '91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의 120계임을 임의 추출하였다.

경기내용은 10가지 공격형태 (① 앞 돌려차기, ② 들어찌기, ③ 앞 후리기, ④ 뒤 후리기, ⑤ 뒷차기, ⑥ 옆차기, ⑦ 빠른발차기, ⑧ 뛰어들어찌기, ⑨ 턴 앞돌려차기, ⑩ 주먹 공격)의 공격 시도 빈도수와 득점수 그리고 성공률에서 승패기간, 8개체급간, 3라운드간, 2자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2원 변량분석하여 유의도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공격 시도 빈도수가 많은 공격형태의 순서는 앞 돌려차기, 빠른발차기와 들어찌기, 뒷차기로 나타났다. ($p < 0.05$)

2. 득점수가 많은 공격형태의 순서는 앞 돌려차기, 들어찌기, 뒷차기로 나타났다. ($p < 0.05$)

3. 성공률이 많은 공격형태의 순서는 앞돌려차기, 들어찌기, 뒷차기로 나타났다. ($p < 0.05$)

4. 공격시도 빈도수와 득점수 및 성공률에서 승자가 패자보다 많았다. ($p < 0.05$)

5. 공격시도 빈도수에서 편급이 가장 많았고 ($p < 0.05$), 득점수와 성공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6. 공격시도 빈도수와 득점수 및 성공률에서 오른자세가 원자세보다 더 많았다. ($p < 0.05$)

7. 공격시도 빈도수에서 2, 3 라운드가 1라운드보다 더 많았으며 ($p < 0.05$), 득점수와 성공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유아들의 행동발달에 관한 연구

강선장

1. 연구 목적

인간의 기초가 확립되는 유아기에 태권도 수련은 성장발달과 행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여 유아교육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와 체육사회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21개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1개 문항당 평균 24개의 응답 항목을 두고 가장 우선 순위의 응답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본 연구자가 해당 체육관을 방문하여 그 체육관 관장과 지도사범의 협조를 구하여 실시하였다.

2) 본 연구의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유아들에게는 한국적성연구소(문화부등록 제

900017-21호)에 의뢰하여 행동발달(감정상태, 정서상태,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지도성)을 실시하여 부모들의 설문 응답과 유아들의 행동발달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현재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취학전 유아들에게 행동발달 검사(감정상태, 정서상태,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지도성)와, 취학전 유아에게 태권도 수련을 시키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태권도 수련에 대한 관심도와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태권도 수련이 유아의 행동발달(성격)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태권도가 유아교육에 기여하여야 할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태권도 체육관에 보낸 동기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주의 집중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보낸다는 응답이 전체의 74.79%(92명)으로 나타났다.

2) 태권도 수련전·후의 행동발달 변화에 대한 질문 결과 부모들은 수련후에 감정상태 81.30%(100명), 정서상태 75.61%(93명), 근면성 74.805(92명), 책임감 82.92%(102명), 협동성 81.30%(100명), 자주성 74.80%(92명), 준법성 65.04%(80명), 지도성 67.48%(83명)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3) 유아들의 검사 결과 수련전에 비해 수련후 감정상태의 경우 M 106.66에서 M 117.03 ($p < 0.05$)로 정서상태의 경우 M 93.33에서 M 110.37 ($p < 0.05$)로, 책임감의 경우 M 75.55에서 M 86.66 ($p < 0.05$)로, 자주성의 경우 M 94.07에서 M 105.18 ($p < 0.05$)로, 준법성의 경우 M 98.51

에서 M 117.77 ($p < 0.01$)로, 지도성의 경우 M 115.18에서 M 127.03 ($p < 0.05$)로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고, 협동성의 경우 M 125.18에서 M 129.25로 약간의 변화는 가져왔으나 의미는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유아기의 태권도 수련활동은 행동발달 및 정신기능의 계발이 촉진되므로, 유아기부터 인간의 계발에 필요불가결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간이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적인 장으로 신체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운동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제언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태권도 체육관을 찾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과보호의 큰 흐름 속에서 자란 어린이들로서 어려움을 모르고 성장했기에 소극적인 극기교육이 아닌 많은 학자들의 충고를 모은 극기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자생력을 길러 줘야 할 것이다.

2) 어린이들의 인격적 발달을 위해 지도자들의 분별력있는 훈육과 격려, 그리고 부모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과 노력은 부모의 권위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3) 번듯한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보다는 풍부한 자료와 흥미영역을 갖춘 활동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정해진 틀이나 수준으로 어린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 어린이의 구체적인 경험과 수준에서 출발, 그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을 즐겁게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로 나타났다.

나) 체급별 득점성공율은 페더급(14.8%) > 웰터급(13.2%) > 라이트급(12.7%) > 플라이급(10.6%) > 밴텀급(10.3%) > 헤비급(10.2%) > 미들급(9.6%) > 핀급(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밴텀급은 가장 많은 발기술을 사용하면서 득점성공율은 10.3%에 그쳤고, 미들급은 가장 적은 발기술을 사용하면서도 9.6%의 득점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득점 성공율은 체급과는 무관하며 반드시 사용 빈도수가 높을수록 득점 성공율도 높다고 볼 수 없다.

2.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종합성적

a.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사용빈도수

96게임의 발차기 총 사용빈도수는 5,195회, 1게임당 평균 사용회수는 54.1회에 따른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1게임당 평균 사용회수는 돌려차기(몸통) (38.5회) > 뒤차기(몸통) (4.5회) > 내려차기(얼굴) (2.6회) > 돌려차기(얼굴) (2.5회) > 밀어차기(몸통) (2.0회) > 주먹지르기(몸통) (1.9회) > 몸돌려 후려차기(얼굴) (1.4회) > 앞차기(몸통) (0.2회) = 옆차기(몸통) (0.2회), 순으로 나타났다.

b.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득점수

96게임의 발차기 총 득점수는 582점, 1게임당 평균 득점수는 6.08점에 따른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1게임당 평균 득점수는 돌려차기(몸통) 4.5점 > 뒤차기(몸통) 0.9점 > 돌려차기(얼굴) 0.3점 > 내려차기(얼굴) 0.3점 > 내려차기(얼굴) 0.27점 > 몸돌려 후려차기(얼굴) 0.08점 > 밀어차기(몸통) 0.0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차기, 옆차기, 주먹지르기(몸통)는 전혀 득점이 없었다.

c. 각 기술 발차기별 득점성공률(%)

96게임 기술 발차기 총 사용회수 5,195회 총 득점수 582점에 따른 각 기술 발차기의 득점성공율은 뒤차기(몸통) (19.8%) > 돌려차기(얼굴) (11.

7%) > 돌려차기(몸통) (11.6%) > 내려차기(얼굴) (10.4%) > 몸돌려 후려차기(얼굴) (6.0%) > 밀어차기(몸통) (1.6%) 순으로 나타났다.

3. 회전(Round)별 각 기술동작의 종합성적

a. 96게임의 발차기 기술동작의 총사용회수 5,195회 중 회전별 총 발차기 사용빈도수는 3회전(1,984회) > 2회전(1,667회) > 1회전(1,544회) 순으로 나타났다.

b. 96게임의 기술 발차기 총 득점수 582개 중 회전별 총 발차기 득점수는 3회전(208점) > 2회전(199점) > 1회전(17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부위별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득점수

96게임의 기술 발차기 총 득점수는 582점 중 얼굴부위의 발차기 득점수는 63점으로 10.8%이며, 몸통 부위의 득점수는 519점으로 89.2%를 나타냈다.

5. 금지행위의 체급별, 회전별 사용회수

96게임 중 금지행위를 사용한 회수는 총 342회로 나타났다. 체급별로 핀급(51회) > 페더급(48회) > 라이트급(47회) > 웰터급(46회) > 미들급(42회) > 밴텀급(40회) > 플라이급(39회) > 헤비급(29회) 순으로 나타났다. 회전별 사용회수로는 3회전(131회) > 2회전(109회) > 1회전(102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1게임당 평균 3.6회의 금지행위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제언

1. 태권도 경기는 주로 돌려차기(몸통)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타 기술에 대한 고차원적인 기술개발이 요망된다.
2. 세계 태권도 연맹 경기규칙에 의거 득점 1회는 +1점(얼굴부위, 몸통부위)이다. 태권도 경기, 기술발전 측면에 있어 각 득점부위에 따른 점수 차등제를 두어야 하겠다. (예: 몸통, 평범한 기술로 득점한 것 1점. 고난도 기

로 나타났다.

나) 체급별 득점성공율은 페더급(14.8%) > 웰터급(13.2%) > 라이트급(12.7%) > 플라이급(10.6%) > 밴텀급(10.3%) > 헤비급(10.2%) > 미들급(9.6%) > 핀급(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밴텀급은 가장 많은 발기술을 사용하면서 득점성공율은 10.3%에 그쳤고, 미들급은 가장 적은 발기술을 사용하면서도 9.6%의 득점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득점 성공율은 체급과는 무관하며 반드시 사용 빈도수가 높을수록 득점 성공율도 높다고 볼 수 없다.

2.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종합성적

a.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사용빈도수

96게임의 발차기 총 사용빈도수는 5,195회, 1게임당 평균 사용회수는 54.1회에 따른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1게임당 평균 사용회수는 돌려차기(몸통) (38.5회) > 뒤차기(몸통) (4.5회) > 내려차기(얼굴) (2.6회) > 돌려차기(얼굴) (2.5회) > 밀어차기(몸통) (2.0회) > 주먹지르기(몸통) (1.9회) > 몸돌려 후려차기(얼굴) (1.4회) > 앞차기(몸통) (0.2회) = 옆차기(몸통) (0.2회), 순으로 나타났다.

b.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득점수

96게임의 발차기 총 득점수는 582점, 1게임당 평균 득점수는 6.08점에 따른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1게임당 평균 득점수는 돌려차기(몸통) 4.5점 > 뒤차기(몸통) 0.9점 > 돌려차기(얼굴) 0.3점 > 내려차기(얼굴) 0.3점 > 내려차기(얼굴) 0.27점 > 몸돌려 후려차기(얼굴) 0.08점 > 밀어차기(몸통) 0.0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차기, 옆차기, 주먹지르기(몸통)는 전혀 득점이 없었다.

c. 각 기술 발차기별 득점성공률(%)

96게임 기술 발차기 총 사용회수 5,195회 총 득점수 582점에 따른 각 기술 발차기의 득점성공율은 뒤차기(몸통) (19.8%) > 돌려차기(얼굴) (11.

7%) > 돌려차기(몸통) (11.6%) > 내려차기(얼굴) (10.4%) > 몸돌려 후려차기(얼굴) (6.0%) > 밀어차기(몸통) (1.6%) 순으로 나타났다.

3. 회전(Round)별 각 기술동작의 종합성적

a. 96게임의 발차기 기술동작의 총사용회수 5,195회 중 회전별 총 발차기 사용빈도수는 3회전(1,984회) > 2회전(1,667회) > 1회전(1,544회) 순으로 나타났다.

b. 96게임의 기술 발차기 총 득점수 582개 중 회전별 총 발차기 득점수는 3회전(208점) > 2회전(199점) > 1회전(17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부위별 각 발차기 기술동작의 득점수

96게임의 기술 발차기 총 득점수는 582점 중 얼굴부위의 발차기 득점수는 63점으로 10.8%이며, 몸통 부위의 득점수는 519점으로 89.2%를 나타냈다.

5. 금지행위의 체급별, 회전별 사용회수

96게임 중 금지행위를 사용한 회수는 총 342회로 나타났다. 체급별로 핀급(51회) > 페더급(48회) > 라이트급(47회) > 웰터급(46회) > 미들급(42회) > 밴텀급(40회) > 플라이급(39회) > 헤비급(29회) 순으로 나타났다. 회전별 사용회수로는 3회전(131회) > 2회전(109회) > 1회전(102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1게임당 평균 3.6회의 금지행위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제언

1. 태권도 경기는 주로 돌려차기(몸통)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타 기술에 대한 고차원적인 기술개발이 요망된다.
2. 세계 태권도 연맹 경기규칙에 의거 득점 1회는 +1점(얼굴부위, 몸통부위)이다. 태권도 경기, 기술발전 측면에 있어 각 득점부위에 따른 점수 차등제를 두어야 하겠다. (예: 몸통, 평범한 기술로 득점한 것 1점. 고난도 기

술 득점 2점, 얼굴 평범한 기술동작 2점, 고난도 기술 득점 3점)

3. 태권도 경기시 경기장의 링이 없으므로 선수가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많다. 경기의 흐름이 박진감이 없고, 맥이 끊어지므로 연속적인 경기의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경기 운영 방식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4.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부심의 위치가 선수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압감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부심의 위치가 개선되어야 하겠다.
5. 즉시 체점 및 표출에 있어 전광판 위치는 감독관의 테이블 위에 설치하여 관중, 임원, 선수 모두 볼 수 있는 전광판의 개발이 요망된다.

태권도 경기중 선제공격과 역습공격의 득점력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재봉

1. 연구의 목적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차기 기술위주의 역습 공격 보다는 선제공격이 이 국내경기는 물론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기중에 발생하는 기술을 선제공격과 역습공격으로 나누어 선제공격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분석하였으며, 각 발차기의 선제공격에 따른 체급별, 부위별로 사용빈도수에 대한 득점력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일선 지도자나 선수들이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태권도의 경기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자는 태권도 경기중 일어나는 선제공격의 기술별, 체급별, 부위별 사용빈도와 그에 따른 득점성공율, 역습공격의 기술별 사용빈도와 득점수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였다.

- 1) 발차기 기술의 체급별 종합성적
- 2) 발차기별 선제공격의 종합성적
- 3) 득점부위별 발차기 기술의 종합성적

3. 결론

1991년부터 1992년까지 경기력이 우수한 대학 및 일반부 선수들이 출전하는 태권도 경기의 총 80게임(16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발차기 기술의 체급별 종합성적
2. 발차기 기술의 체급별 사용빈도

전체 80게임에서 발차기 기술의 총 사용빈도는 4,742회, 1게임당 평균 사용빈도는 59.28회로 나타났다으며, 기술별 사용빈도는 앞돌려차기가 3,819회(게임당 평균 47.73회), 뒷차기 514회(게임당 평균 6.43회), 찍어차기 314회(게임당 평균 3.93회), 뒤후리기 59회(게임당 평균 0.74회), 앞후리기 36회(게임당 평균 0.45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차기 기술의 체급별 사용빈도는 1게임당 평균 사용빈도인 59.28회 보다 플라이급, 밴텀급, 라이트급에서 많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밴텀급에서는 71.4회로 가장 많은 기술을 사용하여 경량급 선수들이 중량급 선수들 보다 많은 발차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발차기 기술의 체급별 득점수

발차기 기술의 총 득점수는 454점, 1게임당 평균 득점수는 5.68점이었으며, 기술별 득점수는 앞돌려차기(356점), 뒷차기(64점), 찍어차기(23점),

뒤후리기(7점), 앞후리기(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급별 득점수는 라이트급(75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는 경량급과 중량급의 차이가 없었다.

3) 발차기 기술의 체급별 득점성공률

전체 발차기 기술의 득점성공률은 9.57%, 기술별 득점성공률은 뒷차기(12.45%), 뒤후리기(11.86%), 앞후리기(11.11%), 앞돌려차기(9.33%), 찍어차기(7.32%)의 순으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 뒷차기나 뒤후리기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체급별 득점성공률은 경량급에서는 낮은 득점성공률을 보였으며, 중량급에서는 높은 득점성공률을 보였으나 앞후리기와 뒤후리기에 의한 득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발차기별 선제공격의 종합성적

1) 발차기별 선제공격의 사용빈도

선제공격에 의한 발차기 기술의 총 사용빈도는 2,634회, 1게임당 사용빈도는 32.29회였으며, 앞돌려차기(2,263회), 찍어차기(207회), 뒷차기(134회), 뒤후리기(17회), 앞후리기(13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제공격의 체급별 사용빈도는 플라이급, 라이트급, 헤비급에서 비교적 많은 수치를 보였으나 다른 체급과 비교해서 큰 차가 없으므로 체급별 선제공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발차기별 선제공격의 득점수

선제공격에 의한 발차기 기술의 총 득점수는 209점이었으며 앞돌려차기(178점), 찍어차기(17점), 뒷차기(12점), 뒤후리기(2점)의 순으로 득점의 대부분이 앞돌려차기 기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후리기 기술에 의한 득점은 전혀 없었다.

선제공격으로 획득한 1게임당 평균 득점수는 2.61점으로 나타났다.

체급별 선제공격의 득점수는 라이트급(32점),

웰터급(32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중량급이 경량급보다 높은 득점수를 나타내어 선행된 연구보다 득점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3) 발차기별 선제공격의 득점성공률

발차기별 선제공격의 득점성공률은 뒤후리기(11.76%), 뒷차기(8.96%), 찍어차기(8.21%), 앞돌려차기(7.87%)의 순이었다. 돌려차기 기술은 사용빈도에 비하여 득점성공률이 낮았으며 난이도가 높은 뒷차기나 찍어차기는 득점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선제공격과 역습공격의 비교분석

전체 발차기 기술의 선제공격(2,634회)이 역습공격(2,108회)보다 많은 사용빈도를 나타냈으나 득점수에서는 선제공격(209점)이 역습공격(245점)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어 득점성공률은 역습공격(11.93%)이 선제공격(7.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모든 발차기 기술을 역습공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돌려차기와 찍어차기 기술의 경우에 선제공격의 사용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득점성공률에서는 찍어차기 외에 역습공격의 성공률이 비교적 높아 득점면에서는 아직도 역습공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뒷차기 기술은 역습공격에서 많은 득점수를 나타내어 발차기 기술중에 가장 높은 득점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3. 득점부위별 발차기 기술의 종합성적

발차기 기술중에서 모든 기술은 얼굴부위를 공격할 수 있으나 몸통부위를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은 앞돌려차기와 뒷차기 기술인 반면에 전체 사용빈도 4,742회중 얼굴부위를 공격한 빈도는 677회(14.28%), 몸통부위를 공격한 빈도는 4,065회(85.72%)로 대부분 몸통공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부위의 사용빈도 677회중 발차기별 사용빈도는 찍어차기(314회), 앞돌려차기(235회), 뒤후리기(59회), 앞후리기(36회), 뒷차기(33회)의 순이었으며, 몸통부위의 사용빈도 4,065회중 발차기별 사용빈도는 앞돌려차기가 3,584회, 뒷차기가 481회였다.

전체 게임의 총 득점수 454점 중에 얼굴부위의 득점수는 56점(12.33%), 몸통부위의 득점수는 398점(87.67%)으로 나타났다.

얼굴부위의 득점수 56점 중에 발차기별 득점수는 찍어차기(23점), 앞돌려차기(19점), 뒤후리기(7점), 앞후리기(4점), 뒷차기(3점)의 순이었으며, 몸통부위의 득점수는 앞돌려차기가 337점, 뒷차기가 61점으로 득점이 몸통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제언

1. 태권도 경기에서 뒷차기나 뒤후리기와 같이 득점성공율이 높은 발차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고 공격시에 헛점이 많이 노출되어 상대에게 역습공격당할 위험성 때문에 앞돌려차기 위주의 경기운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차기 기술로 상대의 역습공격을 피하여 득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격법의 개발이 연구과제라 하겠다.

2. 태권도 경기에서 득점이 몸통부위에 집중되어 기술발달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제안으로 점수의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부위별, 기술별 점수의 차등을 두어 얼굴부위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득점이 되었을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선수나 지도자들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이다.

3. 태권도의 공격기술은 발기술과 주먹지르기로 대별할 수 있으며, 실제 경기에서 주먹지르기 공격은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공격의 연결과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80게임의 주먹지르기 총 사용빈도 393회중에서 선제공격(127)보다는 역습공격(226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총 득점수는 2점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경기규칙에도 주먹지르기에 대한 득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조사에 의하면 주먹지르기에 의한 득점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주먹지르기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의 「권」은 주먹의 의미가 있으므로 주먹지르기가 방어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공격일 때에는 득점으로 인정되어 태권도 경기의 기술향상에 이바지 해야될 것이다.

4.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라이트급에서 사용빈도와 득점수에 따른 득점성공율이 매우 높았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라이트급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현상은 이후에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5. 선행된 연구내용 중에 운동생리학, 트레이닝론 등의 연구가 극히 적어 기술연습이나 훈련시에 과학적인 지도방법이 아닌 경험적 학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도자나 선수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의 방법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ND**

행 사 기 록

고 단 자

'93년도 제1차 고단자 심사대회 합격자 명단 ('93.3.13)

6단

- ▲ 서울: 이준우 박영길 이선복
정정식 김익환 신병현
이상덕 김연철 김변수
- ▲ 대구: 김윤철 하 용 문성열
- ▲ 경기: 박경하 권영내 이재성
한승만
- ▲ 강원: 양희석
- ▲ 충북: 송석중
- ▲ 경남: 이기식 서재천
- ▲ 경북: 윤정우
- ▲ 전남: 김종열 박노양

7단

- ▲ 서울: 최봉호
- ▲ 대구: 이귀하
- ▲ 충북: 이철재
- ▲ 경남: 권영춘

사 범

제74기 사범교육 합격 자 명단 ('93.3.18 ~ 31, 국기원)

▲ 서울

- 이명호 오교환 이광호 김현미
김은국 김내완 김영수 이현섭
박만석 박영환 박진교 최임선
오광철 김범신 이승욱 김형서
차용섭 박기순 김운근 손유영
허형구 나진아 임재경 신성진
김종오 정선수 장효선 김태형
임상현 김재호 오세영 이선택
김기호 윤선열 신연희 권오성
염명진 조의준 김재범 나창호
송용섭 박집선

▲ 부산

- 손순찬 황종일 김용환 김정근
최광열 명호정 임범재 이승신
이성희 김민규 최세경 백정자
하정태 락삼호 허종석 천정우

▲ 대구

- 이명기 배이환 박재식 손원기
이광수 김일환 류호대 강태우
이근서 오성욱

▲ 인천

- 손귀중 유태욱 전동준 박용운
박상용 신양배 공광호 서재춘
김호성 정종훈 홍성일

▲ 광주

- 박성희 이철섭 최영배

▲ 대전

- 허현배

▲ 경기

- 최기찬 강구준 김경환 우제열
김명기 전재진 조영인 고상호
박종덕 이강윤 염관우 박희수
조소형 김현인 원덕재 김재형
이규상 김복녀 홍성일 김성기

▲ 강원

- 이병남 허재영 박은정 이무성

▲ 충남

- 안호진 최은희 한권희

▲ 충북

- 이상구 김병학

▲ 경남

한재형 최종호 박종록 김구용
이상원 라정희 장부경 김성학
구성우 이지환 전현태 이수철

▲ 경북

송하문 박정욱 권현태 박영숙
김영미 김진수 예방해 김래현
김동진

▲ 전남

문병덕 장시영 김근열

▲ 전북

정득조 이찬호 강동원 김천동
김경완 이정배

▲ 국토부

이삼범 김진원 이문용 임홍용
김권일

국 내 대회

'93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93.3.29~31, 서울체고체육관)

(남자부)

▲ 편급

- 1위 : 진승태 (한체대)
- 2위 : 석운용 (용인대)
- 3위 : 소병관 (경희대)
문성대 (한체대)

▲ 플라이급

- 1위 : 박재성 (한체대)
- 2위 : 서성교 (춘천군청)
- 3위 : 박재완 (경상대)
유성호 (용인대)

▲ 밴텀급

- 1위 : 김인경 (한체대)
- 2위 : 권태호 (춘천군청)
- 3위 : 김현용 (경희대)

김형원 (경희대)

▲ 페더급

- 1위 : 김병철 (국군체육부대)
- 2위 : 김정호 (경희대)
- 3위 : 안홍엽 (용인대)
이안호 (경희대)

▲ 라이트급

- 1위 : 박세진 (경희대)
- 2위 : 성의천 (국군체육부대)
- 3위 : 정을진 (경희대)
신광수 (충남협회)

▲ 웰터급

- 1위 : 임병호 (경희대)
- 2위 : 장종오 (용인대)
- 3위 : 하태경 (춘천군청)
김광수 (한체대)

▲ 미들급

- 1위 : 이동환 (서울체고)
- 2위 : 이현석 (동아대)
- 3위 : 최승길 (용인대)
정용국 (동아대)

▲ 헤비급

- 1위 : 김제경 (국군체육부대)
- 2위 : 김현일 (지하철공사)
- 3위 : 심재섭 (단국대)
박형래 (용인대)

(여자부)

▲ 편급

- 1위 : 유수진 (경희대)
- 2위 : 양소희 (천안여고)
- 3위 : 최한솔 (경성여실고)
최영아 (송곡고)

▲ 플라이급

- 1위 : 유수미 (리라공고)
- 2위 : 모선영 (한체대)
- 3위 : 서미라 (용인대)
김민정 (용인대)

▲ 밴텀급

1위 : 원선진 (경희대)

- 2위 : 김은숙 (용인대)
- 3위 : 함진희 (리라공고)
진용순 (한체대)

▲ 페더급

- 1위 : 이승민 (경희대)
- 2위 : 권혁실 (용인대)
- 3위 : 양은정 (성신여대)
윤 희 (한체대)

▲ 라이트급

- 1위 : 박경숙 (경희대)
- 2위 : 강해은 (경성여실고)
- 3위 : 정은옥 (경희체육관)
김혜선 (용인대)

▲ 웰터급

- 1위 : 김미영 (용인대)
- 2위 : 조향미 (경희대)
- 3위 : 신은정 (용인대)
정윤경 (상명여대)

▲ 미들급

- 1위 : 박은선 (고양여중고)
- 2위 : 박혜영 (경희대)
- 3위 : 이은주 (성신여대)
이선희 (용인대)

▲ 헤비급

- 1위 : 정명숙 (해성여고)
- 2위 : 김태희 (성신여대)
- 3위 : 추수연 (용인대)
박은주 (상명여대)

'93년도 전국 종별 선 수권 대회

(93.4.10~14, 올림픽제2체육관)

(고등부)

▲ 편급

- 1위 : 김병태 (대전체고)
- 2위 : 전형준 (선인고)
- 3위 : 이정인 (여수고)

이영환(리라공고)

▲ 플라이급

- 1위 : 나호동(풍생고)
- 2위 : 김원기(부평기고)
- 3위 : 손민호(송곡고)
- 이두건(개금고)

▲ 밴텀급

- 1위 : 윤정환(대전체고)
- 2위 : 유원철(신흥고)
- 3위 : 윤희식(동성고)
- 김남수(송곡고)

▲ 페더급

- 1위 : 김영주(광주체고)
- 2위 : 이명복(리라공고)
- 3위 : 박진영(국제고)
- 국관호(인천체고)

▲ 라이트급

- 1위 : 이웅국(송곡고)
- 2위 : 김정수(개금고)
- 3위 : 김신명(경남체고)
- 전갑규(송림고)

▲ 웰터급

- 1위 : 마정진(광양고)
- 2위 : 지상규(충북체고)
- 3위 : 김재선(여수고)
- 박용춘(광주체고)

▲ 미들급

- 1위 : 윤병석(광주체고)
- 2위 : 전경환(개금고)
- 3위 : 안용준(리라공고)
- 최형민(영북중고)

▲ 헤비급

- 1위 : 문용철(인천체고)
- 2위 : 김정민(서울체고)
- 3위 : 박준택(순천공고)
- 최원집(광주체고)

연대회

(93.4.22~24, 국기원)

(남대부)

▲ 핀급

- 1위 : 조영국(동아대)
- 2위 : 김홍일(충남대)
- 3위 : 강성일(청주대)
- 윤종일(동아대)

▲ 플라이급

- 1위 : 최재훈(동의대)
- 2위 : 고동완(한체대)
- 3위 : 최용훈(동아대)
- 조재성(경희대)

▲ 밴텀급

- 1위 : 이강희(단국대)
- 2위 : 김창균(청주대)
- 3위 : 김 준(경원대)
- 김현용(경희대)

▲ 페더급

- 1위 : 민정환(청주대)
- 2위 : 양재철(한체대)
- 3위 : 김봉석(한체대)
- 김병욱(한체대)

▲ 라이트급

- 1위 : 정을진(경희대)
- 2위 : 이승희(용인대)
- 3위 : 양재훈(한체대)
- 이재성(충남대)

▲ 웰터급

- 1위 : 최정복(경희대)
- 2위 : 양원철(청주대)
- 3위 : 황혁모(단국대)
- 문광선(경희대)

▲ 미들급

- 1위 : 강동국(동아대)
- 2위 : 김정규(경희대)
- 3위 : 이정진(청주대)
- 김광수(한체대)

▲ 헤비급

- 1위 : 이현석(동아대)
- 2위 : 이종현(명지대)
- 3위 : 김기남(경원대)
- 이승준(한체대)

(여대부)

▲ 핀급

- 1위 : 유수진(경희대)
- 2위 : 김진성(한체대)
- 3위 : 이인정(중부대)

▲ 플라이급

- 1위 : 이순영(용인대)
- 2위 : 이정수(중부대)
- 3위 : 도선영(한체대)
- 서미라(용인대)

▲ 밴텀급

- 1위 : 이화진(경희대)
- 2위 : 진용순(한체대)
- 3위 : 박영신(상명여대)
- 박은미(성신여대)

▲ 페더급

- 1위 : 이승민(경희대)
- 2위 : 신동선(성신여대)
- 3위 : 김미선(인천전문대)
- 윤명숙(상명여대)

▲ 라이트급

- 1위 : 진혜윤(경희대)
- 2위 : 박경숙(경희대)
- 3위 : 강지희(동명전대)
- 서연화(성신여대)

▲ 웰터급

- 1위 : 조항미(경희대)
- 2위 : 신은정(용인대)
- 3위 : 정용경(상명여대)
- 이영미(성신여대)

▲ 미들급

- 1위 : 이은주(성신여대)
- 2위 : 고내인(동명전대)

제20회 전국 대학 개인
대회 및 제2회 품새 경

3위 : 김은주 (한체대)
이종월 (중부대)

▲ 해비급

1위 : 장 철 (경희대)
2위 : 추수연 (용인대)
3위 : 신혜진 (상명여대)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강동국 (동아대)
이화진 (경희대)

▲ 우수선수상

민경환 (청주대)
이순영 (용인대)

▲ 감투상

양재철 (한체대)
이은주 (성신여대)

▲ 장려상

김홍일 (충남대)
이경수 (중부대)

▲ 지도상

김우규 (동아대)
전정우 (경희대)

'93년도 전국 종별 선수
권 대회
(93.4.28~30, 국기원)

(중등부)

▲ 편급

1위 : 김현주 (관교중)
2위 : 정용조 (은행중)
3위 : 홍률락 (구월중)
오규하 (당곡중)

▲ 플라이급

1위 : 조성민 (단국중)
2위 : 김의철 (문성중)
3위 : 강석진 (영남중)

정진우 (광주체중)

▲ 밴텀급

1위 : 강무희 (문성중)
2위 : 신준식 (성남서중)
3위 : 이윤시 (용곡중)
이유신 (덕원중)

▲ 페더급

1위 : 이상호 (풍생중)
2위 : 김세연 (광주체중)
3위 : 김기석 (구월중)
손명국 (덕원중)

▲ 라이트급

1위 : 이준재 (동성중)
2위 : 정선영 (구월중)
3위 : 최영훈 (덕원중)
윤석용 (성남서중)

▲ L-웰터급

1위 : 엄광흠 (은행중)
2위 : 강남원 (관교중)
3위 : 김주연 (풍생중)
사기훈 (여수중)

▲ 웰터급

1위 : 서기풍 (배명중)
2위 : 양관식 (풍생중)
3위 : 이상훈 (복성중)
이종균 (풍생중)

▲ L-미들급

1위 : 이영수 (효성중)
2위 : 곽병주 (동성중)
3위 : 김간선 (성남동중)
박석현 (은행중)

▲ 미들급

1위 : 고태수 (광주체중)
2위 : 김종훈 (영남중)
3위 : 박장순 (성남서중)
장원석 (대덕중)

▲ L-헤비급

1위 : 서성복 (광주체중)
2위 : 조현준 (한성중)
3위 : 이재모 (향도중)

김종원 (영남중)

▲ 해비급

1위 : 이상학 (상무중)
2위 : 김선철 (이수중)
3위 : 이창호 (용곡중)
김용백 (백수중)

(일반부)

▲ 편급

1위 : 김병도 (체육선교신학교)
2위 : 한서길 (상무체육관)
3위 : 안순구 (챔피언체육관)

▲ 플라이급

1위 : 박종천 (대전동구청)
2위 : 황교찬 (신수체육관)
3위 : 이철우 (평택체육관)

▲ 밴텀급

1위 : 정관영 (전북협회)
2위 : 최성화 (대전동구청)
3위 : 장선택 (체육선교신학교)
윤인수 (체육선교신학교)

▲ 페더급

1위 : 박상석 (대전동구청)
2위 : 소성진 (체육선교신학교)
3위 : 이지형 (한국체육관)
김동원 (체육선교신학교)

▲ 라이트급

1위 : 임창현 (체육선교신학교)
2위 : 박종순 (상무체육관)
3위 : 백승학 (대전동구청)
윤석진 (화랑체육관)

▲ 웰터급

1위 : 윤주환 (일산체육관)
2위 : 신종명 (대덕구청)
3위 : 신동우 (삼성도장)
유봉한 (청북선체육관)

▲ 해비급

1위 : 이종길 (전북협회)
2위 : 김상일 (신촌본관)

3위 : 최진수(체육선교신학교)

제3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 남녀 고교대회 (’93.5.1~4, 국기원)

(남고부)

▲ 핀급

- 1위 : 박정석(동성고)
- 2위 : 김태호(대전체고)
- 3위 : 오진영(리라공고)
- 김재환(광양고)

▲ 플라이급

- 1위 : 정재원(광영고)
- 2위 : 이두건(개금고)
- 3위 : 조승원(풍생고)
- 안운섭(충남체고)

▲ 밴텀급

- 1위 : 김광호(충남체고)
- 2위 : 김태훈(리라공고)
- 3위 : 박정우(서울체고)
- 박창현(영광중고)

▲ 페더급

- 1위 : 최재용(송림고)
- 2위 : 전쌍기(부산체고)
- 3위 : 오석량(강대부고)
- 유용진(정명고)

▲ 라이트급

- 1위 : 김정수(개금고)
- 2위 : 박동엽(한성고)
- 3위 : 이용국(송곡고)
- 김은철(여수고)

▲ 웰터급

- 1위 : 김민우(부산체고)
- 2위 : 전현우(강화고)
- 3위 : 장용중(서울체고)
- 심기선(대전체고)

▲ 미들급

- 1위 : 최석환(송곡고)

2위 : 정재광(시온고)

3위 : 자상영(충남체고)

빙원철(여수고)

▲ 헤비급

- 1위 : 임종식(선인고)
- 2위 : 모종준(부산체고)
- 3위 : 박창진(개금고)
- 배일남(송곡고)

(여고부)

▲ 핀급

- 1위 : 양소희(천안여고)
- 2위 : 장현미(부평여상)
- 3위 : 윤영경(경성여실)
- 김보인(김제북고)

▲ 플라이급

- 1위 : 최재숙(송곡고)
- 2위 : 유수미(리라공고)
- 3위 : 서동미(천안여상)
- 김병희(은광여고)

▲ 밴텀급

- 1위 : 이선영(송곡고)
- 2위 : 함진희(리라공고)
- 3위 : 전영식(천안여고)
- 오은하(고양중고)

▲ 페더급

- 1위 : 이지은(리라공고)
- 2위 : 이경민(시온고)
- 3위 : 채수진(혜성여고)
- 신현순(송곡고)

▲ 라이트급

- 1위 : 김옥남(배성여상)
- 2위 : 전윤희(태원고)
- 3위 : 김수정(천안여고)
- 안근아(김제여고)

▲ 웰터급

- 1위 : 정미화(김제북고)
- 2위 : 유은진(문산중고)
- 3위 : 이영혜(인천체고)

조미례(리라공고)

▲ 미들급

- 1위 : 이희영(고양중고)
- 2위 : 양춘희(김제북고)
- 3위 : 최민정(송곡고)
- 신경현(문산고)

▲ 헤비급

- 1위 : 정명숙(혜성여고)
- 2위 : 이선민(문산중고)
- 3위 : 김윤경(경성여실)
- 서정화(리라공고)

(남고부 단체전)

▲ 통합 플라이급

- 1위 : 정대영(동성고)
- 2위 : 나형준(영북중고)
- 3위 : 황병련(리라공고)
- 지진성(서울체고)

▲ 통합 페더급

- 1위 : 김동현(동성고)
- 2위 : 신명국(영북중고)
- 3위 : 이명복(리라공고)
- 박정우(서울체고)

▲ 통합 웰터급

- 1위 : 김경훈(동성고)
- 2위 : 김남용(영북중고)
- 3위 : 안용준(리라공고)
- 정재균(서울체고)

▲ 통합 헤비급

- 1위 : 원종택(동성고)
- 2위 : 최형민(영북중고)
- 3위 : 장형철(리라공고)
- 김영호(서울체고)

▲ 무제한급

- 1위 : 윤희식(동성고)
- 2위 : 권창근(영북중고)
- 3위 : 문대성(리라공고)
- 진준수(서울체고)

(여고부 단체전)

- ▲ 통합 플라이급
1위 : 최한솔(경성여실고)
2위 : 김보인(김제북고)
3위 : 최재숙(송곡고)
유수미(리라공고)

- ▲ 통합 페더급
1위 : 조선미(경성여실고)
2위 : 채영주(김제북고)
3위 : 이선영(송곡고)
이지은(리라공고)

- ▲ 통합 웰터급
1위 : 강해은(경성여실고)
2위 : 정미화(김제북고)
3위 : 신현순(송곡고)
조미례(리라공고)

- ▲ 통합 헤비급
1위 : 김윤경(경성여실고)
2위 : 양춘희(김제북고)
3위 : 최민정(송곡고)
서정화(리라공고)

- ▲ 무제한급
1위 : 배은정(경성여실고)
2위 : 박정숙(김제북고)
3위 : 최영아(송곡고)
함진희(리라공고)

단체상

(남고부)

- 1위 : 동성고
2위 : 영복종고
3위 : 리라공고
서울체고
- ▲ 장려상 : 강화고
▲ 감투상 : 정명고
▲ 최우수선수상
동성고(김동현)
▲ 우수선수상
부산체고(김민우)

- ▲ 지도상
동성고(이완희)
영복종고(이해권)

(여고부)

- 1위 : 경성여실고
2위 : 김제북고
3위 : 송곡고
리라공고
- ▲ 장려상 : 부평여상
▲ 감투상 : 안일여고
▲ 최우수선수상
양소희(천안여고)
▲ 우수선수상
강해은(경성여실고)
▲ 지도상
김오민(경성여실고)
박장규(김제북고)

**제14회 어린이 태권왕
뽑기 태권도 대회**
(93.5.8~9, 88체육관)

(여자부)

- ▲ 편급
1위 : 안정아(성남태평국)
2위 : 김나희(상원국)
3위 : 박재현(울전국)
홍성미(양정국)
- ▲ 플라이급
1위 : 황희영(파장국)
2위 : 정수운(강덕국)
3위 : 신희현(석수국)
문초록(성산국)
- ▲ 밴텀급
1위 : 김경희(쌍문국)
2위 : 김은희(보광국)
3위 : 이지영(오정국)
서지선(보광국)

- ▲ 페더급
1위 : 윤성희(은천국)
2위 : 김은희(보광국)
3위 : 정지은(금광국)
이경아(오정국)

- ▲ 라이트급
1위 : 연운경(은천국)
2위 : 조선미(석수국)
3위 : 박민정(광희국)
임정아(오정국)

- ▲ L-웰터급
1위 : 박희영(포곡국)
2위 : 김소미(장현국)
3위 : 최성정(신석국)
손화정(오정국)

- ▲ 웰터급
1위 : 박혜진(석수국)
2위 : 예현경(은천국)
3위 : 임경화(거여국)
이호정(충무국)

- ▲ L-미들급
1위 : 최 민(천현국)
2위 : 오경옥(부원국)
3위 : 이용남(관양국)
김선옥(은천국)

- ▲ 미들급
1위 : 나지숙(석수국)
2위 : 박소라(우산국)
3위 : 서 진(은천국)
이혜숙(광희국)

- ▲ L-헤비급
1위 : 유진아(석수국)
2위 : 박연우(금광국)
3위 : 김자임(고일국)
김혜연(강덕국)

- ▲ 헤비급
1위 : 남지영(강덕국)
2위 : 이지은(고일국)
3위 : 노미정(석수국)

김상아(신일국)

(남자부)

▲ 편급

- 1위 : 고동영(서귀중앙국)
- 2위 : 이순재(단대국)
- 3위 : 전하성(신갈국)
신광범(성남북국)

▲ 플라이급

- 1위 : 김상철(마장국)
- 2위 : 강진규(부안국)
- 3위 : 하경훈(면목국)
문용수(세곡국)

▲ 밴텀급

- 1위 : 정우채(서룡국)
- 2위 : 류준수(운학국)
- 3위 : 신건우(석수국)
이신환(마장국)

▲ 페더급

- 1위 : 박태열(서귀중앙국)
- 2위 : 박진호(아양국)
- 3위 : 허승준(도신국)
홍진한(상원국)

▲ 라이트급

- 1위 : 이창훈(서귀중앙국)
- 2위 : 유돈영(통리국)
- 3위 : 허승호(금화국)
안영일(천현국)

▲ L-웰터급

- 1위 : 김택희(마천국)
- 2위 : 신민규(소래국)
- 3위 : 박대운(대평국)
황민철(단대국)

▲ 웰터급

- 1위 : 설승룡(대일국)
- 2위 : 이기수(성남동국)
- 3위 : 김일구(금화국)
임치형(신시흥국)

▲ L-미들급

- 1위 : 강선호(봉천국)
- 3위 : 이 웅(신일국)
박운재(통리국)

▲ 미들급

- 1위 : 유승현(태평국)
- 2위 : 최기정(부춘국)
- 3위 : 김선우(대일국)
임효준(수창국)

▲ L-헤비급

- 1위 : 김교식(덕소국)
- 2위 : 박홍식(고강국)
- 3위 : 이영배(면목국)
이재학(은행국)

▲ 헤비급

- 1위 : 한동훈(동교국)
- 2위 : 김용호(서룡국)
- 3위 : 류진호(신갈국)
이용덕(은천국)

**'93년도 전국 여자 개인
선수권 대회**
(93.5.19~20, 국기원)

(여고부)

▲ 편급

- 1위 : 김은미(태원고)
- 2위 : 윤영경(경성여실)
- 3위 : 김희화(체육선교신학교)
강문정(새마을체육관)

▲ 플라이급

- 1위 : 박현기(고양중고)
- 2위 : 강선경(상명여대)
- 3위 : 최한솔(경성여실)
김병희(은광여고)

▲ 밴텀급

- 1위 : 박영신(상명여대)
- 2위 : 김미정(은광여고)
- 3위 : 조선미(경성여실)
황은숙(상명여대)

▲ 페더급

- 1위 : 이지은(리라공고)
- 2위 : 김성자(충북체고)
- 3위 : 배은정(경성여실)
이경민(시온고)

▲ 라이트급

- 1위 : 한은진(해성여고)
- 2위 : 김소연(경성여실)
- 3위 : 강해은(경성여실)
강광숙(효원고)

▲ 웰터급

- 1위 : 조미혜(리라공고)
- 2위 : 유은진(문산중고)
- 3위 : 손정민(풍진체육관)
정진영(장평중)

▲ 미들급

- 1위 : 박선미(상명여대)
- 2위 : 이희영(고양중고)
- 3위 : 고내연(동명전대)
라명숙(동명전대)

▲ 헤비급

- 1위 : 정명숙(해성여고)
- 2위 : 김윤경(경성여실)
- 3위 : 양은순(장수고)
신혜진(상명여대)

**제20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대회**
(93.5.11~15, 잠실학생체육관)

(남고부)

▲ 편급

- 1위 : 최만용(동성고)
- 2위 : 정재필(개금고)
- 3위 : 지진성(서울체고)
박정호(부평고)

▲ 플라이급

- 1위 : 김관필(송곡고)
- 2위 : 류영준(선인고)

3위: 김동화(송림고)
나호동(풍생고)

▲ 뱀뱀급

1위: 이임수(개금고)
2위: 박정우(서울체고)
3위: 고대휴(남주고)
윤희식(동성고)

▲ 페더급

1위: 유용진(정명고)
2위: 이영진(성동고)
3위: 이완규(청주기계고)
박진영(국제고)

▲ 라이트급

1위: 김정수(개금고)
2위: 김남웅(영북중고)
3위: 나덕호(국제고)
승진식(경남체고)

▲ 웰터급

1위: 심기선(대전체고)
2위: 이진우(선인고)
3위: 전현우(강화고)
지상규(충북체고)

▲ 미들급

1위: 장현철(리라공고)
2위: 권창근(영북중고)
3위: 방원철(여수고)
이동욱(남주고)

▲ 헤비급

1위: 김영호(서울 체고)
2위: 김영하(금정고)
3위: 백대준(대전체고)
문권수(풍생고)

(여고부)

▲ 핀급

1위: 양소희(천안여고)
2위: 최영아(송곡고)
3위: 윤영경(경성여실고)
김은미(태원고)

▲ 플라이급

1위: 서동미(천안여상)
2위: 유미란(부평여상)
3위: 이신영(인천체고)
윤덕희(배성여상)

▲ 뱀뱀급

1위: 함진희(리라공고)
2위: 김병희(은광여고)
3위: 이선영(송곡고)
전영식(천안여고)

▲ 페더급

1위: 이지은(리라공고)
2위: 조수미(성일상고)
3위: 임혜숙(목천고)
이경민(시온고)

▲ 라이트급

1위: 강광숙(효원고)
2위: 윤미영(충북체고)
3위: 강해은(경성여실)
김수정(천안여고)

▲ 웰터급

1위: 조미례(리라공고)
2위: 이영혜(인천체고)
3위: 한은진(해성여고)
정미화(김제북고)

▲ 미들급

1위: 양춘희(김제북고)
2위: 최민정(송곡고)
3위: 박은선(고양여중고)
송지수(인천체고)

▲ 헤비급

1위: 김윤경(경성여실)
2위: 정혜옥(인천체고)
3위: 이선민(문산중고)
박정숙(김제북고)

(남중부)

▲ 핀급

1위: 홍률락(구월중)

2위: 김현주(관교중)

3위: 명재진(풍생중)
김종성(여수중)

▲ 플라이급

1위: 유인평(청주중)
2위: 최상목(구월중)
3위: 손호형(쌍문중)
민병석(단국중)

▲ 뱀뱀급

1위: 이 철(여수중)
2위: 김광호(풍생중)
3위: 성지민(항도중)
오춘제(구월중)

▲ 페더급

1위: 박희철(관교중)
2위: 김성용(오주중)
3위: 임지훈(풍생중)
이종성(자양중)

▲ 라이트급

1위: 신명수(문일중)
2위: 이인익(한영중)
3위: 이춘기(배명중)
최영훈(덕원중)

▲ L-웰터급

1위: 김주연(풍생중)
2위: 장원모(항도중)
3위: 장택상(자양중)
강남원(관교중)

▲ 웰터급

1위: 장순호(동성중)
2위: 서기풍(배명중)
3위: 길동준(한성중)
장근복(덕원중)

▲ L-미들급

1위: 이승재(배명중)
2위: 박병주(동성중)
3위: 육정수(자양중)
안원용(구월중)

▲ 미들급

- 1위 : 진현민(문일중)
2위 : 이상권(용곡중)
3위 : 전성진(풍생중)
이광중(청주중)

▲ L-헤비급

- 1위 : 박동현(문일중)
2위 : 서성복(광주체중)
3위 : 박동문(배명중)
이규림(여수중)

▲ 헤비급

- 1위 : 최희성(광주체중)
2위 : 전명환(구월중)
3위 : 최용석(한성중)
이창호(용곡중)

(여중부)

▲ 핀급

- 1위 : 이진영(강남여중)
2위 : 배순연(동인천여중)
3위 : 전성아(제천여중)
이수진(대원여중)

▲ 플라이급

- 1위 : 정재은(강남여중)
2위 : 임은미(영성여중)
3위 : 오성숙(안서중)
김은혜(오주중)

▲ 밴텀급

- 1위 : 남성실(안서중)
2위 : 송연화(만수여중)
3위 : 강여진(신수중)
윤수지(대원여중)

▲ 페더급

- 1위 : 박미연(대원여중)
2위 : 이승의(용곡중)
3위 : 채혜경(영북중)
박재숙(만수여중)

▲ 라이트급

- 1위 : 이선희(고양중)
2위 : 김수현(흥덕중)

- 3위 : 노경민(대원여중)
심문정(용곡중)

▲ L-웰터급

- 1위 : 이정숙(대원여중)
2위 : 조지미(연희여중)
3위 : 유차복(고양여중)
주혜원(수원여중)

▲ 웰터급

- 1위 : 차미경(고양여중)
2위 : 이동연(대원여중)
3위 : 이진주(신암중)
홍미란(만수중)

▲ L-미들급

- 1위 : 이현희(대원여중)
2위 :곽정원(오금중)
3위 : 신지아(영북중)
나현주(만수여중)

▲ 미들급

- 1위 : 정진영(장평중)
2위 : 박진(신암중)
3위 : 주지혜(만수여중)
박주옥(고양중)

▲ L-헤비급

- 1위 : 최지은(영도여중)
2위 : 임영지(영란여중)
3위 : 김은주(신암중)

▲ 헤비급

- 1위 : 박효숙(대원여중)
2위 : 김지연(만수여중)
3위 : 김지애(만수여중)

단체상

(남고부)

- ▲ 우승 : 개금고
▲ 준우승 : 서울체고
▲ 3 위 : 동성고
▲ 감투상 : 대전체고
▲ 장려상 : 송림고
▲ 최우수선수상

유용진(정명고)

- ▲ 지도상 : 김창숙(개금고)

(여고부)

- ▲ 우승 : 리라공고
▲ 준우승 : 경성여실고
▲ 3 위 : 천안여고
▲ 감투상 : 김제북고
▲ 장려상 : 부평여상
▲ 최우수선수상
양춘희(김제북고)
▲ 지도상 : 박영수(리라공고)

(남중부)

- ▲ 우승 : 문일중
▲ 준우승 : 구월중
▲ 3 위 : 풍생중
▲ 감투상 : 배명중
▲ 장려상 : 향도중
▲ 최우수선수상
박희철(관교중)
▲ 지도상 : 홍종배(문일중)

(여중부)

- ▲ 우승 : 대원여중
▲ 준우승 : 고양여중
▲ 3 위 : 만수여중
▲ 감투상 : 흥덕중
▲ 장려상 : 신암중
▲ 최우수선수상
이정숙(대원여중)
▲ 지도상 : 손병욱(대원여중)

**제10회문화체육부장관
기 전국체고체육대회**
(’93.5.24~26, 전북체고체육관)

▲ 핀급

- 1위 : 박동중(대전체고)

- 2위: 강경필(충북체고)
3위: 지진성(서울체고)
임태형(전북 체고)

▲ 플라이급

- 1위: 강진호(충북체고)
2위: 안윤섭(충남체고)
3위: 유영택(대전체고)
김철민(광주체고)

▲ 밴텀급

- 1위: 양현모(전북체고)
2위: 박정우(서울체고)
3위: 윤정환(대전체고)
김해철(경남체고)

▲ 페더급

- 1위: 정재균(서울체고)
2위: 김종우(전북체고)
3위: 최정훈(충북체고)
진천수(대전체고)

▲ 라이트급

- 1위: 송진식(경남체고)
2위: 남궁환석(전북체고)
3위: 유근무(대전체고)
전재혁(부산체고)

▲ 웰터급

- 1위: 심기선(대전체고)
2위: 김민우(부산체고)
3위: 지상규(충북체고)
고성석(충남체고)

▲ 미들급

- 1위: 박승원(경남체고)
2위: 윤병석(광주체고)
3위: 김기동(대전체고)
김정민(서울체고)

▲ 헤비급

- 1위: 최원집(광주체고)
2위: 모종준(부산체고)
3위: 이관균(강원체고)
백대준(대전체고)

제22회 전국 소년 체 육대회 태권도 경기 ('93.5.28~30, 국기원)

▲ 핀급

- 1위: 김재훈(문성중)
2위: 이완기(태성중)
3위: 최영진(관동중)
신화강(청주중)

▲ 플라이급

- 1위: 민병석(단대부중)
2위: 박기범(경일중)
3위: 유인평(청주중)
김의철(문성중)

▲ 밴텀급

- 1위: 허종립(이수중)
2위: 이동철(동성중)
3위: 강경범(남주중)
김광민(구월중)

▲ 페더급

- 1위: 박희철(관교중)
2위: 강규선(경성중)
3위: 김종삼(구암중)
고재필(서귀중)

▲ 라이트급

- 1위: 김정선(서귀중)
2위: 김성진(태성중)
3위: 황길재(고창남중)
정선영(구월중)

▲ L-웰터급

- 1위: 강남원(관교중)
2위: 장원모(항도중)
3위: 이성남(영광중)
김신규(중문중)

▲ 웰터급

- 1위: 이상훈(복성중)
2위: 이종관(경일중)
3위: 김정규(온양중)
노구갑(경북체중)

▲ L-미들급

- 1위: 임성근(문일중)
2위: 강승철(대청중)
3위: 이정태(청주중)
김간선(성남동중)

▲ 미들급

- 1위: 이광종(청주중)
2위: 이상관(용곡중)
3위: 이영수(효성중)
최대웅(해동중)

▲ L-헤비급

- 1위: 이규림(여수중)
2위: 황동기(경수중)
3위: 최진용(백제중)
천희라(방어진중)

▲ 헤비급

- 1위: 전명환(구월중)
2위: 이상학(상무중)
3위: 나재광(성남동중)
황치우(영남중)

제28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93.6.16~19, 잠실학생체육관)

(고등부)

▲ 핀급

- 1위: 김병태(대전체고)
2위: 지진성(서울체고)
3위: 이영환(리라공고)
조성일(풍생고)

▲ 플라이급

- 1위: 김태훈(대성고)
2위: 김규환(부산체고)
3위: 김천규(동성고)
양현호(리라공고)

▲ 밴텀급

- 1위: 유원철(신홍고)

2위 : 신병국(영북중고)

3위 : 윤희식(동성고)
박성수(성동고)

▲ 페더급

1위 : 김대성(광양고)
2위 : 이완규(청주기공고)
3위 : 김동현(동성고)
전명기(대성고)

▲ 라이트급

1위 : 김남웅(영북중고)
2위 : 김정수(개금고)
3위 : 송제현(대성고)
김정일(정명고)

▲ 웰터급

1위 : 양성오(성동고)
2위 : 황경범(송림고)
3위 : 고성석(충남체고)
안용준(리라공고)

▲ 미들급

1위 : 병원철(여수고)
2위 : 지상규(충북체고)
3위 : 정재광(시온고)
장형철(리라공고)

▲ 헤비급

1위 : 문권수(풍생고)
2위 : 김근호(전북체고)
3위 : 최원집(광주체고)
모종준(부산체고)

(대학부)

▲ 핀급

1위 : 조영국(동아대)
2위 : 이강철(경상대)
3위 : 석운용(용인대)
임진표(인천체대)

▲ 플라이급

1위 : 맹성재(경희대)
2위 : 전만중(단국대)
3위 : 정주철(충남대)

고광옥(인천전문대)

▲ 밴텀급

1위 : 박영민(경상대)
2위 : 이강희(단국대)
3위 : 박병준(성균관대)
여원재(계명대)

▲ 페더급

1위 : 손효봉(충남대)
2위 : 박민섭(조선대)
3위 : 임성수(경원대)
안홍엽(용인대)

▲ 라이트급

1위 : 신경수(청주대)
2위 : 정을진(경희대)
3위 : 정광재(한체대)
이제성(충남대)

▲ 웰터급

1위 : 최정복(경희대)
2위 : 김 호(동아대)
3위 : 장종오(용인대)
김길훈(경원대)

▲ 미들급

1위 : 김광수(한체대)
2위 : 김정규(경희대)
3위 : 김원식(조선대)
최승길(용인대)

▲ 헤비급

1위 : 박형래(용인대)
2위 : 안성주(충남대)
3위 : 김형태(조선대)
이현석(동아대)

(일반부)

▲ 핀급

1위 : 정영길(대전시동구청)
2위 : 전수옥(보령군청)
3위 : 김봉재(언남체육관)

▲ 플라이급

1위 : 박종천(대전시동구청)

2위 : 강근배(남제주군청)

3위 : 김병도(성산체육관)
배상철(지하철공사)

▲ 밴텀급

1위 : 서성교(춘천군청)
2위 : 정관영(전북협회)
3위 : 우명구(언남체육관)
최성화(대전시동구청)

▲ 페더급

1위 : 임석섭(지하철공사)
2위 : 권태호(춘천군청)
3위 : 강동범(남제주군청)
소성진(체육선교신학교)

▲ 라이트급

1위 : 장 혁(지하철공사)
2위 : 이육근(춘천군청)
3위 : 백승학(대전시동구청)
고용석(남제주군청)

▲ 웰터급

1위 : 방영인(춘천군청)
2위 : 신광수(보령군청)
3위 : 권혁훈(남제주군청)
유봉한(청북선체육관)

▲ 미들급

1위 : 하태경(춘천군청)
2위 : 김동일(대전시동구청)
3위 : 김용광(전북협회)

▲ 헤비급

1위 : 이진원(경산시청)
2위 : 박만성(춘천군청)
3위 : 최연석(남제주군청)
김현일(지하철공사)

행사 안내

- ▲ 7월 30일~8월 1일 : 제4회 월드게임 태권도 경기(네덜란드, 헤이그)
- ▲ 8월 15일~18일 : 제29회 국제심판 강습회
 - 장소 : 미국 뉴욕 펜타라마다 호텔
 - 자격 : 3단이상, 협회장추천
 - 신청마감 : '93.7.31 (세계연맹 사무국)
- ▲ 8월 19일~21일 : 제 11회 남자 및 제4회 여자 세계 선수

- 권 대회(미국, 뉴욕)
- ▲ 8월 22일~29일 : 제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중고대회(잠실학생체육관)
- ▲ 9월 6일~10일 : 제2회 국방부장관기대회(상무체육관)
 - 부별 : 남 - 대학부, 일반부
여 - 일반부(대학, 일반 통합)
 - 접수마감 : 8월 26일(목) 17:00 (대한태권도협회)
 - 대표자회의 : 8월 30일(월)

- 14:00 국군체육부대 상무체육관 회의실
- ▲ 9월 25일~26일 : 제16회 대학연맹회장기대회(관동대 체육관)
- ▲ 9월 8일~21일 : 제76기 사범교육 및 3급 사회체육지도자교육(국기원 지도자 연수원)
- ▲ 9월 18일 : 93년도 3차 고단자 승단심사대회 **한대건**

여백의 시

바다여 너는 강자(强者)

박 거 영(시인)

너의 신념이
너의 정열이
너의 침묵이

행동주의자
바다여, 너는
우리의 것이다!

바다여
너는 거센 승리자
터지는 슬픔을 억누르고
최대한의 지옥을 씹는다.

모두가 그것들이
너의 진한 생명이고 보면

그리고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전부다!

바다여
너는 강력한 실력과
기만과 모함을 모르고
수단과 아부를 모른다.

너는 그 앞에서 온갖 것
슬픔을 쏟아 놓고
자신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너 바다여,
오늘 밤은 무슨 정회(情懷)를
품었기에 그토록
이 한밤을 새워가며
몸부림치고 있느냐.

바다여, 너는
실존주의자
바다여, 너는

최세창회장, 태릉선수촌에서 합숙훈련중인 국가대표선수단 격려



▲ 최세창 회장은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합숙훈련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며, 오는 8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동우국의 위상을 확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국가대표 선수단과 자리를 함께한 최세창 회장(가운데), 홍종수 부회장, 강원식 전무이사.

93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93. 3. 29~31. 서울체고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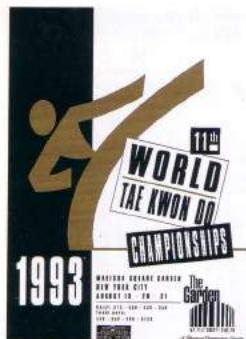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에 파견할 한국 대표선수가 선발되었다.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총망라되어 팽팽한 접전을 벌인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는 남자부 미들급 경기에서 서울체고의 이동완이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며 전 국가대표선수들을 누르고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박재성(한체대), 박재완(경상대) 쌍둥이 형제가 태권도경기 사상 최초로 같은 체급에서 드라마틱한 대결을 벌이며 선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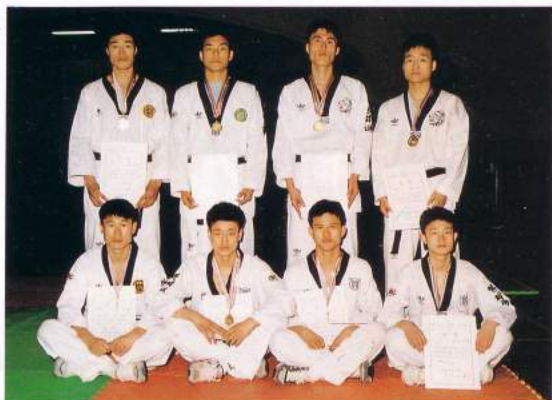


▲플라이급 준결승에서 맞붙은 박재성·박재완 쌍둥이 형제의 대결은 2:2 동점에 형 박재성의 우세승으로 끝났다.



태권도 경기 기술의 백미를 선보이며 체급별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 금년 8월에 뉴욕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 제 11 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파견될 남자부 선수들



▶ 제 4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 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될 여자 대표



제 28 회 대통령기 태권도대회

93. 6. 16~19, 잠실학생체육관

영북종고, 경희대, 춘천군청 우승



◀ 최세창회장의 대회사

▼ 개회식 모습





▲ 개회식 공개행사에서 절도있는 품새와 전통한국무용을 집록한 은광여고 학생들의 태권무용 시범



▶ 고난도의 기술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마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신인들의 등용문인 종별선수권대회가 지난 4월 중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총 888명이 출전한 고등부대회는 4월 14일부터 5일간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중등부 및 일반부 경기는 총 707명이 출전한 가운데 국가원에서 개최되어 우승의 고지를 향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신인 유망주들을 배출했다.

신인들의 등용문 우승의 고지를 향한 치열한 접전



▲ 그동안 갈고 닦은 태권도 경기 기술을 발휘하며 우승의 고지를 향해 힘차게 발차기를 시도하는 신인 선수의 기량이 돋보인다.

전국 여자 개인선수권대회

93. 5. 19~20, 국기원

고교 선수들이 6체급 석권하며 돌풍



▶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선수들의 얼굴에 승리를 향한 집념이 엿보인다.



◀ 금메달을 목에 건 영광의 우승자들.

제 22 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93. 5. 28~30, 국기원

태권도 꿈나무들의 스포츠 축제



◀ 이인섭 문화체육부장관, 김운용대한체육회장 등이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 높은 기량으로 채급별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 장차 태권도 국가대표급으로 주목되는 유망주들이다.



3개 연맹대회 성황리에 개최

제20회 대학연맹 개인대회(93. 4. 22~24, 국기원)

제20회 중고연맹 회장기대회(93. 5. 11~16, 잠실학생체육관)

제14회 어린이 태권왕 대회(93. 5. 8~9, 88체육관)

제20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및 제2회 품새 경연대회

일시: 1993. 4. 22~24, 장소: 국기원, 주최: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후원: KBS, 대한태권도협회



▲ 대학연맹대회 개회식 모습



▲ 중고연맹 장준웅회장이 여중부 우승을 차지한 대한여중팀에게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 태권도 꿈나무들의 잔치인 태권왕 겨루기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상장을 자랑하고 있다.



제3회 용인대총장기대회

93. 5. 1~4, 국기원

동성고 · 경성여실고 단체부 우승

▶ 최세창회장은 개회식에 참석,
학문적 연구와 우수 지도자
배출 등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용인대학교 고광득 총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 용인대 태권도 시범단이
고난도 기술 발차기를 통해
승판을 가르고 있다.

